대전투데이

의료광고심의 190802-중-97491
보문산 생태요양병원 042) 222-5567
암 재활 암 면역 영양식단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3548호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대전열병합 증설' 반대 목소리 확산 … 정치권도 가세

지역 정치권 · 환경단체 · 시민단체 등 산자부에서 대전열병합 증설 반대 기자회견 가져

▲ 대전열병합증설반대 총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4,000여명(온라인 1,595명, 오프라인 2,507명)의 주민 반대 서명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했다.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열병합증설반대 관평동주민자치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대전열병합증설반대 신탄진 주민모임 등 정당, 시민단체, 주민들이 25일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대전열병합 증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는 "산자부는 업체측의 엉터리 주민 수용성을 믿지 말고, 주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전기위원회에서 대전열병합 증설을 부결을 시켜야한다."면서 "대전충남녹색연합은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이 산자부에 전달되어 대전열병합이 증설되지 않도록 끝까지 주민 편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윤기 유성구 위원장은 "산자부 전기위원회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라."고 촉구하며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에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야만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열병합 증설반대 관평동 주민자치위 비상대책위원회 정영현 위원장은 "주민들이 건강과 환경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5천억원이 투자되고 한 번 선택하면 30년을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당장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자."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에 대전열병합 증설 반대 총비상대 책위원회는 4,000여명(온라인 1,595명, 오프라인 2,507명)의 주민 반대서명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대전지역 정치권에서도 대전열병합증설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5선 · 대전 유성구을)은 24일 "주민들이 반대하면 대전열병합발전㈜의 LNG복합화력발전소 발전용량 증설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전열병합발전의 발전용량 증설 추진에 대해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과 우려 등으로 반대가 상당히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사업자 측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지만 설명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대전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책임과 권한을 돌리고 있지만, 전적인 책임은 대전시 정부의 몫이자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와 사업자 측이 주민들의 뜻과 같이 가야지 주민의 뜻과 괴리되거나 형식적인 설명회로 주민의 뜻을 묻는 것처럼 행정편의주의로 흐르면 안 된다"면서 "이는 대전시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 대덕구의회도 지난 14일 대전열병합발전소의 용량 증설 움직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태성 의장을 비롯해 이삼남, 박은희, 오동환, 서미경, 김수연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발전소 설비증설 반대입장을 발표하면서 "대덕구 신일동 대덕산업단지 인근은 소각장을 비롯해 각종 대기환경 오염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라며 "복합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전열병합발전 측은 친환경연료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LNG발전소 가동 초기에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의 배출량이 크게 증가해 설치 목적상 가동과 중지가 수시로 반복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방출된다는 감사원의 의견이 있다"며 "기존 시설 개선이 아닌 발전용량을 112MW에서 495MW로 4배가 넘는 증설은 엄청난 미세먼지 배출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대전열병합발전은 환경개선을 이유로 대다수 시설이 벙커C유에서 LPG로 바꿔 운영하고 있지만 또 다시 환경개선과 노후 설비 교체를 명목으로 증설한다는 것은 시민들은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대전열병합발전 측이 주장하는 300MW이상 가스터빈 교체가 이뤄져야 기존 4만여 세대에 열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재 112MW 시설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도 충분히 열공급을 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전력생산으로 사업목적을 바꾸려는 의도와 함께 실질적 소유주인 외국계 자본의 먹튀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열병합발전은 현재 112MW(메가와트)인 허가 발전용량을 495MW로 증설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 변경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정복 기자

도시철도 트램, 대전의 관문 대전역 경유한다

경부선 · 도시철도 1호선 · BRT와의 환승체계 구축으로 시민 교통편의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의 이용 편의와 도시철도 1호선, BRT와의 원활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대전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역 경유는 기존에 통과했던 인동네거리에서 대전역 네거리를 지나 대전지하차도를 통과해서 우회전하여 대동역으로 연결하는 경로이며, 대전역 서광장과 동광장 쪽에 신규로 정거장 2개소를 개설한다.

현재 대전역은 하루 약 54천명이 이용하고 있고, 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도 하루 약 15천명이 이용하는 대전의 교통요충지로 동광장 쪽에 건설되는 광역BRT 환승센터가 2023년 완공되면 대중교통 환승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그간 대전역 경유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됐으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세밀한 검토가 어려워 지난해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도시철도 2호선이 대전역을 경유하게 되면 환승 없이 대전역을 이용할 수 있어 트램 이용객 증대는 물론 대전을 찾는 사람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원도심 일대 혁신도시건설 성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대전역 경유와 별도로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19년 1월) 후에 신규 도시철도 건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약 40건에 95km가 접수되어 검토하였으나, 2호선과 병행추진은 어려워 올 하반기부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수립용역을 통해 우선순위를 가른 뒤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호선 트램의 대전역 경유로 대중교통 연계기능 강화로 시너지효과 발휘는 물론, 혁신도시 개발 등 도시재생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며 "대전 트램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연장 36.6km 정거장 35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사업비 7,492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말까지 설계를 추진하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해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태선 기자

"개별접촉 감염비율 47%로 역대 최고… 취약사업장 점검 강화"

전해철 행안장관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 1만 3000곳 이상으로 확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해 "27일부터 시작되는 65세부터 74세 어르신에 대한 접종을 기점으로 1만 3000개 이상으로 확대 운영해 접종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본격화되는 대규모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현장의 준비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거주지 인근에서 속도감 있는 백신접종을 시행할 위탁의료기관은 그동안 약 2000여개소가 운영되었다"며 이 같이 전했다.

한편 전 2차장은 "확진자 개별접촉을 통한 감염자 비율은 47%로 4월 4주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은 3월 3주 이후 9주만에 두자릿수인 10.4%에 달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각 자치단체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물론 콜센터, 보험사 등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후속조치를 강화해 주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집중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 강화조치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전 2차장은 "수도권지역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권역에서 감염재생산지수는 1을 넘어섰고, 1.2를 넘어선 충청 · 경북권에서는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각각 23%와 6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취약 사업장의 현장점검 강화 등을 지시하며 "국민여러분께서는 개인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감염노출을 최소화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꼭 받아주실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 2차장은 "접종 규모 확대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 및 감시체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달 말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 등에 관한 사항도 접종계획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국민비서 서비스'로 개인별 백신접종 정보 안내를 1680만회 시행했는데, 앞으로 접종대상자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접종일시와 장소, 유의사항 등을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앱과 문자 등으로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전 2차장은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된 두 종류의 백신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감염예방측면에서는 물론, 2차 전파가능성 차단 측면에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그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하루라도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주저하지 마시고 예약을 통한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정환 기자

[리얼미터] 국민의힘 35.9% vs 민주당 29.7%

野, 호남 · 충청 · 40~50대 상승…5 · 18 광주행 영향
與, 인천경기 · 학생 · 진보층↓…세종시 특공 논란 탓

5월 셋째 주 주간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10주 연속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4 · 7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던 서울에서는 7%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지만, 전주 대비 격차는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에는 5 · 18 민주항쟁 41주년을 맞아 여야 지도부가 광주를 찾았다. 특히 정운천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보수정당 최초로 5 · 18 유족회의 공식 초청을 받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이 야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주 후반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당 지지율에는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35.9%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0.2%포인트 하락한 29.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강보합, 민주당은 약보합세를 보이며, 양당 간 격차는 6.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민주당은 지난주(29.9%)에 이어 2주 연속으로 30% 미만의 지지율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TK(3.3%포인트↓)와 인천 · 경기(1.4%포인트↓), 70대 이상(15.1%포인트↓), 30대(2.5%포인트↓), 무직(8.0%포인트↓) 등에서는 하락했지만, 호남권(9.4%포인트↑)과 충청권(4.3%포인트↑), 여성(1.9%포인트↑), 50대(7.3%포인트↑), 40대(6.0%포인트↑), 60대(3.3%포인트↑), 중도층(3.0%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민주당은 호남권(1.9%포인트↑)과 서울(1.6%포인트↑), 70대 이상(5.1%포인트↑), 20대(1.4%포인트↑), 보수층(2.4%포인트↑) 등에서는 올랐지만, 인천 · 경기(2.7%포인트↓)와 충청권(2.1%포인트↓), 40대(3.3%포인트↓), 60대(3.1%포인트↓), 진보층(5.1%포인트↓), 학생(4.7%포인트↓), 노동직(3.7%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보궐선거가 치러졌던 서울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5.4%, 28.3%로 오차범위 밖인 7.1%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양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모두 상승했지만, 민주당 상승폭(1.6%포인트)이 국민의힘(0.1%포인트)보다 더 컸다.

반면 부산을 포함한 PK에서 두 정당 지지율은 각각 44.6%, 25.6%로 19%포인트 격차를 보이며, 직전 조사(16.9%포인트 차)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같은 기간 0.5%포인트 상승한 7.1%를, 열린민주당은 0.3%포인트 하락한 5.5%를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은 0.8%포인트 내린 4.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과 18일, 20일과 21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5.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정복기자

아산시 탕정면 용두 · 갈산리 주민들 시장면담 요구하며 농성 25일,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공구예정지인 아산시 탕정면 용두 · 갈산리 일원 개발에편입된 토지주들이 아산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벌이고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 · 민심경청 프로젝트 시행

5월26~30일, 간담회 · 현장방문 등 국민과 당원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강훈식)은 26일(수)~30일(일)까지 '국민소통 ·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 곳곳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당 운영에 반영하여, 진정한 민생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소규모 간담회 ▲현장방문 ▲천막 등을 이용한 경청 프로그램(찾아가는 민주당)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1일 1회 추진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최우선으로 준수하고, 간담회는 화상회의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역위원회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민심보고서를 가감 없이 작성하여, 오는 30일까지 각 시 · 도당으로 취합 후 중앙당에 제출하게 된다. 이렇게 취합된 내용은 오는 6월1일 당 쇄신 방향과 운영 방안 등을 담은 당 대표 대국민 보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강훈식 충남도당위원장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정당이 갖추어야할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정복기자

박병석 의장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대화복귀 역할을"

모스크바서 러시아의 한반도 · 북한 핵 전문가 초청 간담회 주최

러시아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러시아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 핵 전문가를 초빙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원 외교를이어 나갔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모스크바 소재 롯데 호텔에서 주한 러시아 대사를역임한 글렙 이바센초프 국제관계위원회 부총재, 러시아 외교부 북핵담당 특임대사로 활동했던 올렉 다비도프 세계경제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한반도 전문가들을 초빙해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22일(한국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북정책의 기조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사이에서 완전히 조율된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4년 동안 이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트럼프 정부의 탑다운 방식의 일괄타결'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제3의 길을택할 것이다"라고 점쳤다.

간담회에서 박 의장은 포괄적 합의를바탕으로 단계적 ? 점진적 발전이 한반도의 평화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자신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이제는 북한이 응답하고 대화에 나설 때다.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을 설득해서 대화에 복귀하는 데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지지를 바랐다.

국회=김성구기자

아산시의회, 제4회 의원회의 개최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25일, '2021년 제4회 의원회의'를 의장실에서 개최했다.

황재만의장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모두가 우려하고 있으며, 공직자가 감염되면 행정공백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되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활동으로 최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회의 집행부 주요 안건으로는 다음달 6월 10일 개최되는 제230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공개모집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기획예산과) ▲아산코미디홀 운영방식 변경 추진(문화관광과) ▲아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도로과) ▲아산시 청년 · 청소년 조기중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보건행정과) 등 4건의 세부 안건 설명이있었다.

위원추천으로는 ▲아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에 홍성표 의원이 추천되어 본회의 의결 후 선임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심사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21일과 24일 양일간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는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 지원 관련 정부 추경 및 자체 긴급사업 등 필수 경비 위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5억 6,835만 8천원(5.74%) 증액한 4,893억 5,195만 4천원으로 편성됐으며, 계수 조정을 거쳐 6억 9,370만원(0.14%) 감액한 4,886억 5,825만 4천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등 11개 사업에서 10억 8,520만원을 감액한 반면, '2021 대한민국 숙박 대전' 등 7개 사업에서 3억 9,150만원을 신설했다.

또한 이날 제1회 추경 예산안 반영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등 6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세종=김태선기자

대전시의회 · 국민권익위원회 손잡고 청렴사회 구현

국민권익위와 청렴사회 구현 업무협약 체결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5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전현희)과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회의원 등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강화, 겸직금지 등 의원 행동강령 준수▲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반부패 · 청렴 정책 시행 ▲부패방지를 위한 법령 등 개선사항 제안 및 각종 권고사항의 적극적 수용 · 이해 ▲반부패 · 청렴 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2019년도보다 3계단 상승하여 2등급을 받았으며,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윤리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의원 · 직원 청렴교육 이수 등 반부패 · 청렴정책을 시행 중이다.

권중순 의장은 "대전광역시의회는 변화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혁신추진단을 발족하고 혁신과제 발굴 · 추진 등 시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정직과 청렴으로 솔선수범하는 의회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선거와 유권자의 아름다운 동행' 공모전 수상작 선정

충남선관위, 4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개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남선관위'라 함)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개최한 '선거와 유권자의 아름다운 동행' 공모전 수상작을선정 · 발표하였다.

지난 5월 10일「제10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1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이 중 심사를 통해 최종 15점(대상 1점, 금상 2점, 은상 2점, 장려상 10점)을 선정하였다.

대상 수상작은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를 주제로 제작한 영상 '집 앞에 계단이 생기게 하는 3가지 방법'이 선정되었으며, 이 외에도 ▲공명선거 실현 기원 ▲일상 속에서의 정책선거 구현 등 평소 유권자들이 우리 정치 및 선거에 바라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작품들이 입상하였다.

주요 수상작들은 내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각종 홍보사업에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충남선관위 홈페이지 · SNS에서 볼 수 있다.

김정환기자

당진시의회, 5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

14개 부서 22건에 대한 당면사항 보고받고 토론 등 진행

당진시의회는 지난 2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5월 중 의원출무일을 갖고 집행부 14개 부서 22건에 대한 당면사항 보고 받고 토론 등을 진행했다.

이날 논의된 세부 안건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신평면 사회복지관 신축(변경) 관리계획 상정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 ▲기후에너지과 소관의 도비도 매입 및 관광지 조성 ▲도시재생과 소관의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건축과 소관의 당진시 경관계획 재수립 외 1건 등 총 14개 부서 22건이다.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당면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 제시, 효율적인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창용 의장은 "6월부터 시작되는 제83회 제1차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소통으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홍문표 의원, 야권대통합과 정권교체 위한 전략 발표

전당대회 비전발표회…경험과 경륜 갖춘 유일 후보임 강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문표 후보는 25일 첫 전당대회 행사로 열린 비전 발표회에 참석, '경험과 경륜을 갖춘' 유일한 후보자임을 강조하고 야권 대통합과 정권교체에 대한 승리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홍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내로남불식 행태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처참히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외교에 대해서도 고작 55만 명 분의 백신과 우리 기업의 피 같은 44조원(반도체, 전기차)을 바꾸고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정부와 여권의 실정을 비판했다.

홍 후보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문 대통령 지지율 20%대 중반까지 내려올 시 대통령직 사퇴' 촉구와 문 대통령이 민주당 탈당 및 거국내각 구성을 통해 남은 임기를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번 당대표는 내년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10개월짜리 당대표라며, 당의 자강과 야권대통합,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경험과 경륜 그리고 결단력 있는 후보자가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5번의 대선 경험과 2번의 국회의원선거를 진두지휘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유일한 후보자"임을 강조하며, 당의 개혁 · 혁신과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당을 알고 ▲조직을 알고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아는, 역량과 자질 그리고 비전을 두루 갖춘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홍 후보는 끝으로 ▲생활정치를 통한 현장중심 정책 개발 ▲청년청 신설 ▲당원 예우 개선 ▲공천혁신과 비례대표 호남우선 풀뿌리 공천 실천 ▲노인복지청 신설 ▲여성 차별 · 불이익 해소 위한 제도 개선 ▲대북정책 패러다임 개선 등 공약을 제시하며, 당의 자강과 정권탈환을 위해 온 몸을 던지고 피 한방울 남김없이 다 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예산=박제화기자

daejeontoday.com

아산시, P4G 서울 정상회의 참여 탄소중립 공동선언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24일,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 주최한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에 비대면으로 참여해 243개 국내 모든 지자체와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지구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늘려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기후변화 분야 최고 전문기구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이 있었으며 이에 앞선 7월에는 지자체가 모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했으며 아산시도 회원 지자체로 활동하고있다.

유성구의회 사도위, 대전신세계 엑스포점 등 주요사업 현장점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인미동)는 25일 관내 주요사업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어은동에 조성중인 안녕센터(소호형주거클러스터)와 도룡동 대전 신세계 엑스포점 건립현장을 차례로방문했다.

대전교육청, 행복과 창의성 키우는 학교예술교육 강화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5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예술적 감수성과 조화로운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2021학년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미래를 여는 예술교육의 추진을 위해 ▲학교예술교육 교육과정 내실화 ▲학생의 예술체험 기회 확대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연계 활성화 등을 내실있게 실현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미래인재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체험과 실기중심의 학교예술교육 교육과정을 내실화하여 심미적 감수성 및 인문소양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학생 및 학교 맞춤형 특색있는 예술교육을 운영한다.

등교 ·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 · 보급하고 수업 우수사례를 발굴 · 공유하는 등 체험과 실기 중심의 학교예술교육을 확산하였으며, 1교 1예술동아리(307교, 2개 분교 포함), 학생예술심화동아리(51교), 예술특성화교육과정(11교) 등 다양한 예술분야를 체험하고 협력적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생활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학생의 비대면 · 대면 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코로나 19로 학생의 정서적 결손을 보완하고 회복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예술교육 환경을 선진화하여 일상적 예술체험 교육공간을 창출한다.

학생 중심의 온라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온라인 예술공감터(5교), 학생예술교육활동 UCC영상 탑재 · 공유하는 예술온교실 대회 실시로 시공간을 초월한 학생예술활동을 지원한다.

교사와 학생,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제5회 학교예술교육박람회'도 10월 추진 예정이며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등 운영방식을 다각화하여 학교 중심 예술교육의 어울림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예술교육 환경 선진화를 위하여 학교 내 예술교육 전용공간인 예드림 (藝-Dream) 홀 구축사업(4교), 음악실 · 미술실 환경 개선사업(16교)으로 학교 예술교육 공간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교원 연수 프로그램 및 교사공동체 지원으로 등교 · 원격수업에 필요한 맞춤형 예술교육 지도역량을 강화한다.

코로나 19로 확대된 교육기술(에듀테크) 활용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등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예술교과 교사의 예술 지도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 학교예술교육 교사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예술교과연구회(6팀)와 사제동행 교사예술동아리(8팀)를 2배 늘려 선정하여 예술교육 연구 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지역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연계 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지역사회 예술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체제 구축 운영으로 다양하고 내실 있는 학교예술교육을 추진한다.

관내 예술단체가 학교를 방문하여 예술공연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사업 추진으로 학생들에게 예술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단위학교 예술교육 실기강사를 지원하여 예술 실기수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학생들의 문화예술 경험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계 활력을 제고하고자 '학생문화예술관람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학교 전체 학생과 동 나이의 학교밖 청소년 포함 약 5만여명에게 20,000원(포인트)을 지급하여 체험중심의 예술교육을 적극 지원한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속 발전을 위한 안정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대전학교 문화예술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 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대전학교예술교육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시대,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술적 감수성을 토대로 행복과 창의성을 키우는 학교예술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즐겁게 배우고 함께 나누는 학교예술교육'을 위해 다양한 예술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동 정●●●

업무협약식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26일 오후 4시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마을단위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제4차 임시회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26일 오후 3시 30분 인천시 연수구 소재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

어린이 통행 위험지역 동행정담

황인호 동구청장= 26일 오후 5시 흥룡어린이공원을 방문, 어린이 통행 위험지역 동행정담에 나선다.

업무협약식

장종태 서구청장= 26일 오후 3시 청사 갑천누리실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자원순환문화정착 업무협약식에 참석.

어린이 용돈 수당 정책 간담회

박정현 대덕구청장= 26일 오전 9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어린이 용돈 수당 정책 간담회에 참석.

대전시-대전국방벤처센터, 국방산업분야 8개 벤처기업 신규협약

협약기업 73개로 확대… 국방산업 육성 박차

대전시와 대전국방벤처센터가 국방산업 관련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협약기업을 73개로 늘리면서 국방 산업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였다.

대전시는 대전국방벤처센터와 함께 25일 오전 11시 국방벤처센터 내 회의실에서 8개 벤처기업 대표들과 신규 사업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군 사업과제 발굴, 기술개발 지원, 경영 및 마케팅지원 등 국방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입 및 육성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이 한층 높아진 시점에 진행된 이번 신규협약 체결식은 대전시가 대전지역 국방벤처기업의 방산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국방벤처센터는 2011년 설립 당시 22개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작해 매년 단계적으로 협약기업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73개 협약기업을 지원하게 됐으며, 이는 전국 9개 국방벤처센터 가운데 가장 많은 협약기업 수치이다.

지난해 대전국방벤처센터는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63건, 국방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54건, 홍보 및 기업인증 등 경영지원 23건 등 다양한 사업지원을 수행했다. 또한 협약기업의 국방산업 분야 매출은 지난해말 기준 1,673억원으로 전년대비 67% 상승하여 지역 국방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정현수 대전국방벤처센터장은 "신규 8개 협약기업들은 소프트웨어 및 IT, 항공 및 유도전자 분야기술 등 미래 국방기술을 선도할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체"라며 "향후 무기체계 국산화 및 국방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권경민 미래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국방벤처센터의 적극적인 기업지원활동을 통해 협약기업의 매출상승은 물론 고용창출 또한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대전지역 국방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대전성모병원 '암성통증 말하면 줄어듭니다' 캠페인 실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병원장 김용남 신부)은 25일 '암성통증, 말하면 줄어듭니다' 를 주제로 2021년 호스피스 통증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암성통증 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효율적인 통증관리를 위한 행사로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증 관리에 대한 O, X 퀴즈를 진행하고 통증조절 안내 리플릿 및 홍보물품을 배포했다.

한남대학교, 손소리복지관에 후원물품 전달

직접 만든 립뷰마스크 기부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관장 박종희)은 지난 24일 한남대학교 총학생회(학생회장 정일권)로부터 립뷰마스크를 후원받아 이에 대한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받은 립뷰마스크는 대화 시 상대방의 입 모양과 표정 등을 볼 수 있도록 앞부분이 투명한 필름으로 제작한 마스크로서,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게 되어 입모양과 표정이 보이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 · 언어장애인들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제품이다. 또한 한남대학교 학생들이 청각 ·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 직접 손수 제작해 더욱 의미를 더 했다.

박종희 관장은 "대학생들이 모여 마스크를 직접 만들고 이를 기부까지 해주어 너무 감사드린다.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한 청각 · 언어장애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며 소감을 전했다.

송병배기자

유성구, 취약계층 생활요금감면 전수조사 완료

4대 요금감면에 대한 전수조사 감면신청 완료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위한 집중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8,188건의 감면신청을 완료하고, 연간 15억 원(월 1억3천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대상자 1인은 4대 생활요금 신청 시 최대 약 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격에 따라 감면액 및 요금제도가 달라 대상자 본인도 정확한 감면액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구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취약계층의 요금감면 혜택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대상자들에게 우편발송, 문자, 유선 안내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을 독려했고 거동불편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는 행정복지센터 마을복지팀과 지역활동가들이 함께 세대를 방문해 신청 · 접수를 도왔다.

구는 앞으로 신규 감면혜택 복지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하고, 요금감면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요금감면 전수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누구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복지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발굴 노력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함께 살기좋은 유성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동구, '청소년의 달'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대전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점검 실시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구 관계자 및 대전동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10여 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을 펼쳤다.

이번 합동 점검은 가오동 일원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와 유해약물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달」을 맞아 일부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업주들에게는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했다.

또한, 점검반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PC방, 노래방 등 관내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 ▲담배 ·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판매금지 ▲술 · 담배 유해표시 문구 부착 여부 등을 지도 점검했다.

아울러, 청소년 안전 관련 유인물을 배포, 청소년 보호와 유해환경 정화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펼쳤다.

안옥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 약물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보호하고 일탈 행위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술 · 담배 판매 행위 등 관련법 준수 여부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했으며 상습 위반업소는 추후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김태선 기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 공모

6월 8일까지 공모 접수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2000년 개소하여 올 6월 30일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을 공모, 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주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한 실적이 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갖춘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위탁기간은 올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5년이며, 6월 중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수탁기관은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 관리를 맡게 된다.

접수기간은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이며, 대전시 가족돌봄과(042-270-0680)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가족돌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와 함께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 · 치료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대전시에는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2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농협, 탄동농협과 함께 이심점심 농촌 일손돕기

농협대전지역본부(본부장 윤상운)와 탄동농협(조합장 이병열)은 25일 탄동농협 고향주부모임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성구 반석동 포도농가를 찾아 이심점심 농가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농번기 일손 부족 농가를 방문해 포도순 따기 작업과 함께 농가에 도시락을 제공해 농업인의 가사부담을 덜어주었다.

이날 일손도움을 받은 농업인은 "요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손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오늘 대전농협 임직원들이 도움의 손길을 건네 너무 큰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병열 조합장은"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손돕기를 준비했다 "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고충을 함께하고, 농협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송병배 기자

대덕구 2050 탄소중립 동참 선언

전국 243개 지자체 참여, 탄소중립 공동목표 실현의지 표명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지난 24일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에 참여해 전국 243개 지자체와 '2050 탄소중립' 동참을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2021 P4G 서울정상회의('21.5.30~31)' 사전행사의 하나로, 2020년 7월 발족한 실천연대의 기후행동 의지가 확산돼 모든 지자체가 2050년 이전에 지구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산림 등 탄소 흡수원을 늘려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국내외 지방정부가 하이브리드(대면+비대면)방식으로 참여했다.

지방정부는 선언문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 추구 △탄소중립 사업 발굴 및 지원 △지자체 간 소통 및 공동협력 △선도적인 기후행동실천 · 확산 등 지역이 중심이 돼 탄소중립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환경위기시계(환경파괴 가속화에 따른 인류생존 위기감을 시각으로 표현)를 2020년 9시 47분에서 1992년 7시 49분까지 되돌리는 퍼포먼스 공연도 진행됐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사회를 맡아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각 지자체별 탄소중립 실현의 필요성과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대덕구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덕e 시작하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에너지의 바른전환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실현 ▲도심 녹색화로 온실가스 저감 ▲친환경 녹색 도시 생태계조성 ▲똑똑한 자원순환으로 탈탄소사회 조기진입 등 5개 분야 3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을 약속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지역 중심 탄소중립의 주춧돌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의 실천과 노력이 모여 지구를 지켜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서구, 2021년 '청년 자본확충 공모사업' 추진

다음 달 11일까지 청년 문제 해결 위한 청년 정책 이슈 발굴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달 11일까지 2021년 '청년 자본확충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청년들에게 사회적 자본확충의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년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공모내용은 ▲청년 정책 이슈 발굴 및 정책 제안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년 네트워크 모델 제시 ▲지역과 연계된 청년들의 참신한 프로젝트이면 모두 제안 가능하다.

단체 또는 대표자의 주소지가 서구인 3인 이상의 청년 단체나 모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공모 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방문 및 우편, 이메일(27saesaw@korea.kr)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공모사업은 서류심사, 발표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5개 팀을 선정하여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장종태 청장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가 미래 세대의 삶을 이끌 수 있다"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춘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구,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완료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술인 일자리 제공 ▲경관 개선 ▲볼거리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중촌맞춤패션거리에 조형물 설치, 놀이공간 조성, 영상제작까지 총 사업비 4억1천5백만원이 투입됐다.

효문화마을관리원에는 뿌리공원을 진입하는 초입의 경관 개선 및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아이들의 볼거리, 놀거리에 초점을 두었다. 어른들이 어렸을 적 즐겨하던 추억 놀이 조형물을 곳곳에 배치해 방문객이 향수를 느끼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했다. 유휴 · 노후 공간이었던 밋밋한 잔디밭 둘레길 노면은 디자인을 가미해 재정비, 놀이도형(사방치기 등)을 도안한 놀거리 둘레길로 조성했다.

중촌동맞춤패션거리에는 기존 입간판을 대신해 상징조형물 <BLOSSOM-피어나다>과 지도를 함께 설치함으로써 패션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각 상호들의 위치를 알려 패션거리 초입임을 알리는 홍보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벽부조형물 <우아하게> 타일벽화는 패션을 주제로 디자인한 이미지로, 내부 조명을 넣어 건물 외벽에 설치해 패션거리의 상징조형물 역할을 할 것이다.

●동 정●●●

전담의료기관 지정 협약식

양승조 충남도지사= 26일 오전 11시 도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협약식에 참석.

소형 흑파수박 출하현장 방문

황선봉 예산군수= 26일오전 10시 30분 신양면 소형 흑피수박 출하현장을 방문.

수상자 상장 전수식

김석환 홍성군수= 26일 오후 3시 군청회의실에서 열리는 국제청소년회화대회 수상자 상장 전수식에 참석.

세종 우기 대비 배수펌프장 일제점검 · 가동훈련 실시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여름철 장마와 태풍, 집중호우에 대비해 25일 배수펌프장 일제점검과 실제 가동훈련을 벌였다.

배수펌프장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에 설치돼 태풍, 집중호우 시 불어난 빗물을 강제로 배수시켜 도시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이다.

시는 이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전설비, 펌프, 수문 등 설비관리를 점검하고 운영매뉴얼, 비상연락망 체계 정비 등 배수펌프장 각종 설비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여름철 도시침수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조치원 남리배수펌프장에서 가상의 기상상황에 따라 배수펌프장을 실제 가동하는 훈련을 실시해 비상시 펌프장 운영요원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여름철 어떠한 기상상황에서도 배수펌프장이 고장 없이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한 유지관리와 가동준비태세를 확립해 침수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2020 전국 사회복지시설평가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A등급

예산군 장애인 종합 복지관(관장 임덕규)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전 영역에서 'A등급'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전국 144개의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총 6개 영역(시설 · 환경, 재정 · 조직, 프로그램 ·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시설 운영의 전반)을 평가했으며,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6개 전 영역에서 'A등급'을 받아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전반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복지관은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물론 체계적인 개인별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와 직원이 존중받는 점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신뢰를 받으면서 전 분야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복지관은 지난 1999년 개관해 지역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이용인 중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년마다 시행되는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2011, 2014, 2017, 2020년 등 총 4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적을 거뒀다.

예산=이영렬 기자

충남의 탄소중립, 대한민국을 움직이다

2019년 전국 최초 선언 이후 1년여 만에 정부도 '탄소중립'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쏘아 올린 '탄소중립'이 대한민국을 움직였다.

2019년 탄소중립 선언 1년 만인 지난해 정부가 탄소중립을 안팎에 선언하고, 이후 7개월 만에 전국 모든 광역 · 기초 자치단체가 동참을 약속하고 나섰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19년 10월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컨퍼러스'를 개최하고, 동아시아 중앙 ·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기후비상상황'을 선포했다.

기후 비상상황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다짐하는 것으로, 도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탄소중립 실현)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조속한 폐쇄를 목표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정책 적극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한민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는 24일 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 지방정부 특별세션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공동으로 선언했다.

전국 지자체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명의의 공동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인류적 사명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 △국민 모두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발굴과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이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상호 소통하고 공동 협력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적인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확산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1년 7개월 전 충남도의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라며 "전국 지자체의 이번 동참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 공동 추진 방안을 확대 모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4G는 세계 각국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의체로, 2017년 9월 출범했다.

회원국은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남아공, 에티오피아, 케냐 등 12개국이다.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날 지방정부 특별세션에는 양승조 지사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의장,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충청남도의 정책과 실천'을 주제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탈석탄 국제컨퍼런스 개최 △아시아 최초 탈석탄동맹 가입 △전국 최초 탈석탄 금고 정책 도입 등 탈석탄 정책 추진 성과를 밝혔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범도민대책위원회 △동아시아지방정부 최초 기후비상상황 선포 △'2050 탄소중립' 공표 △광역 최초 환경교육도시 선언 △농업발전 상생협력사업 △산업 부문 청정연료 전환사업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등 지역 주민과함께 실천 중인 탄소중립 정책도 소개했다.

국제협력을 통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아시아 최초 탈석탄동맹 가입 △국내 최초 언더투 연합 가입 △언더투 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 선출 등을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가정의 달, 검진하고 행복 챙기세요"

건보공단 대전충청본부, 수검독려 이벤트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본부장 성백길)가 월별 테마를 선정해 연중 고른 건강검진 수검을 독려하기 위한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5~6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너에게 행복을 선물할게! 검진하고 행복 챙기세요!"의 테마로 이달 2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대전, 세종, 충청지역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여를 위해서는 기간 내에 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암검진 항목(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폐암) 중 1종목 이상 받으면 되며,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5천원권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8월28일 발표될 예정이며, 해당 선물은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 된다.

성백길 본부장은 "이번 이벤트가 코로나로 위축된 수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어, 많은 국민들이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가족사랑 실천에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송병배 기자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 사업 지속 추진

예산군, 깨끗한 농장경영으로 안전축산물 생산 기여

예산군은 주변 환경이 열악한 축산농가의 환경을 개선하는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축산업 및 축산농가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전환과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진행된다.

군은 사업을 통해 축사 주변에 다년생 조경수, 유실수 식재, 화단, 꽃길 조성을 비롯해 농장 세움 간판 및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 가축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 중심에서 기타 가축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깨끗한 농장경영으로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이영렬 기자

"공식 유튜브 '구독중' 인증하고 경품도 받으세요"

예산군, 오는 31일까지 60명 추첨해 경품 증정

예산군이 공식 유튜브 '구독중' 인증 이벤트를 지난 2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더욱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추진되며, 군의 공식 유튜브에서는 군정 홍보 및 관광 관련 영상, 각종 사업 홍보영상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예산군 공식 유튜브(https://bit.ly/2RJVLNQ)에 접속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를 캡처한 화면을 유튜브 ID와 함께 예산군 공식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올리면 된다.

특히 공식 유튜브 영상 '좋아요' 및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클릭할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참여자 중 60명을 선정해 CU편의점 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오는 6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다양한 소식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예산군 공식 유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이영렬 기자

세종시 국토부 지정 '드론 실증도시' 선정

약 8200㎢ 총 9개 스마트시티 기반사업 모델 본격실증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2021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실증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지역에 특화된 드론 실증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수요처와 연계 · 조기상용화를 추진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 공모에는 광역단체 포함 지자체 30여 곳이 신청해 서류 ·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자체 10곳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지난 21일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역 특화형 실증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국비 약 10억 5,000만 원 사업비를 전액 지원받아 'D(데이터) · N(네트워크) · A(인공지능) 드론기반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세종완성'이라는 목표로 드론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세종시 컨소시엄에는 시를 비롯해 드론시스템㈜, ㈜경기항공, ㈜어썸텍, ㈜서우, ㈜베이리스, ㈜GSITM,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기관 8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3개 분야 9개 실증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으로 ▲건설현장 실시간 안전관리 서비스 ▲도시바람숲길 생육모니터링서비스 ▲불법 옥외광고 모니터링 서비스 ▲스마트시티 통합배송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또 ▲고층건물 소화용 드론기반 소방 서비스 ▲인공지능 분석기반 도로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3D 드론 디지털 트윈 관제 플랫폼 ▲드론 도킹스테이션 표준마련 및 시스템 구축 ▲드론연구센터 및 스마트건설 관제센터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실증구역은 지난 2월 지정된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규제 샌드박스 지정구역인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합강캠핑장, 중앙공원, 금강(금남보행교~5-1생활권 경계), 3생활권 수변상가 및 수변공원 일원이다.

시는 사업기간 안전확보를 위해 내달 충북 보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에서 테스트 비행을 시작으로 실증서비스와 조기상용화를 목표로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원창 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스마트 시티 드론활용의 상용화 모델을 제시해 드론 서비스 전국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융합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세종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홍성군, 만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 '속도'

홍성군의 만75세 이상 어르신 화이자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은 25일 정부의 백신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만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백신 1차 접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오는 5월 31일부터 홍성군 예방접종센터(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된다.

군은 오는 6월 11일까지 지역 내 만75세 이상 백신 접종 대상 어르신 12,020명 중 동의자 10,036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며 접종일시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만60세~74세 어르신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의 사전 예약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예약은 6월 3일까지 온라인(nvcr.kdca.go.kr) 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041-630-9900),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백신 접종은 만 65~74세 어르신은 오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만 60~64세 어르신은 6월 7~19일까지 예약된 위탁의료기관(지정된 병의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보쉬전장 애경사 나눔릴레이 캠페인 전개 세종시 부강면에 위치한 보쉬전장이 애경사 릴레이나눔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나눔리더 임대빈(좌측 세번째) 57호, 백명오(우측 세 번째) 58호에 가입, 인증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동/네

한국해비타트, 목천읍에 서민 보금자리 12세대 제공

해비타트 희망드림주택 헌정식

한국해비타트(이사장 윤형주)는 25일 천안시 목천읍 동리 일원에서 '2021 해비타트 희망드림주택 헌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헌정식은 박상돈 천안시장, 문진석 국회의원,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윤마태 한국해비타트 충남세종지회 이사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드림주택에 입주하는 12세대의 희망찬 새출발을 축하했다.

4개동, 지상 3층, 24세대 규모의 이번 해비타트 희망드림주택은 지난 2019년 3월 1차로 12세대를 제공한 데 이어, 올해 5월 2차로 12세대를 완공하며 이날 헌정식을 열게 됐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한국해비타트와 천안시, 기업,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491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려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신산업 육성 및 천안형 스타트업 지원 전략 모색

제1회 천안과학기술혁신추진단 SUMMIT 포럼 개최

천안시가 23일 소노벨 천안에서 '제1회 천안과학기술혁신추진단 서밋(SUMMIT) 포럼'을 열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지역 신산업 육성 및 천안형 스타트업 지원에 나섰다.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로 미래를 준비한다, 미래 신산업 육성과 천안형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트렌드에 따른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는 앞서 산업동향에 민감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대학과 지역 혁신기관의 리더로 구성된 천안과학기술혁신추진단을 위촉했다. 천안과학기술혁신추진단은 정기적인 포럼을 운영해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한 핵심 과제와 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행사에서 신중경 연구위원(한국경영연구원)은 '도심항공교통 산업과 천안시 스타트업', 이병일 수석연구원(한국광기술원)은 '디지털 치료제 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신중경 연구위원은 창업생태계의 특성화와 그에 맞는 지원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천안시 8대 전략산업 중 도심항공교통과 융합분야를 중점 육성할 것을 제언했다. 정책으로는 도심항공교통 시범단지 조성, 규제 샌드박스 신청, 대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R&D) 사업 등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병일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치료제 관련 정부 정책 동향 및 디지털 치료제 시장 동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천안시 대응전략으로 디지털 치료제 전문 임상시험 체계 구축 및 지역바이오산업 융합 연구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류성호 연구처장(순천향대학교)이 좌장을 맡고 전광기 수석연구원(한국자동차연구원), 안진철 의학레이저 중점 연구소장(단국대학교)이 토론자로 나서 스마트모빌리티와 정밀의료 분야의 산업 동향, 정책제언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전광기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효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실증센터 구축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안진철 단국대학교 의학레이저 중점 연구소장은 천안시에는 대학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집적돼 있고 의료분야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자리 잡고 있어 이를 활용한 지역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시는 이번 포럼에서 큰 틀의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전략과 천안형 스타트업 지원 방향에 대해서 조망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후속 포럼 및 실무추진단 회의를 릴레이로 개최해 더욱 심층적인 논의와 사업 구체화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포럼이 천안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례적 소통채널로서, 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혁신도시 천안을 위한 미래 신사업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이정복기자

동 정

착수보고회

박상돈 천안시장=26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천호지 수변경관 개선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

충남소년체육대회

송토영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26일 오후 3시 태안군청씨름장에서 열리는 제49회 충남소년체육대회 및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 격려.

롯데칠성음료 천안지점 외 3개 마트

취약계층 스파게티 특식 지원

롯데칠성음료 천안지점, ㈜원랜드원마트(대표 김근배), 천안815마트(대표 강덕수), 충청마트 목천점(대표 김정훈)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4일 취약계층 가정의 스파게티 특식을 위한 후원품(100만원 상당)을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김갑쇠)에 전달했다.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나눈다'라는 취지의 롯데칠성음료 사회공헌 매대 프로젝트로 마련된 이번 후원품은 롯데칠성음료 천안지점, ㈜원랜드원마트, 천안815마트, 충청마트 목천점이 공동협업으로 사회공헌 홍보 매대를 설치·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롯데칠성음료 천안지점 외 김근배 대표, 강덕수 대표, 김정훈 대표는 한 목소리로 "사회공헌 매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후원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후원된 스파게티 특식재료로 취약계층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사회공헌 매대 운영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갑쇠 이사장은 "상생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롯데칠성음료 천안지점 외 3개 매장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매대 운영을 통해 천안시복지재단과 함께 지역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충남사회혁신센터, 찾아가는 충격공작소

성거읍행정복지센터 뜰로 출동

충남사회혁신센터(센터장 박주로)가 지난 24일부터 25일 이틀간 천안시 성거읍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친환경 체험프로그램 '찾아가는 충격공작소'를 진행했다.

'찾아가는 충격공작소'는 3.5톤 윙바디 트럭에 플라스틱 분쇄기, 사출기, 레이저 가공기, 3D 프린터 등 장비를 탑재해 참여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친환경 의식제고를 위한 충남사회혁신센터의 체험프로그램이다.

이번 진행된 '찾아가는 충격공작소'는 성거읍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마을복지계획추진단,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 주민 70여명이 참여했다.

천안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처리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처리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천안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계약당사자들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신규, 갱신)으로,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규 시행에 따라 시민에 대한 홍보 및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창영 도시계획과장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 정해진 기일 내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니콘 꿈꾸는 스타트업, 천안시가 키운다!!"

스타트업 발굴·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 및 지역 혁신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천안시는 25일 소노벨 천안에서 스타트업 발굴·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 및 지역 혁신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학벨트기능지구 선정, 충남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그린 스타트업타운 선정 등 스타트업 혁신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천안시는 올해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발굴·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스타트업 발굴·지원사업은 8대 전략산업과 소프트웨어 기반 우수한 예비 또는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사업화 자금 지원 및 후속 성장 지원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천안시와 17개 관계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천안형 창업 생태계 구축위해 마련됐다.

17개 관계기관은 공주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상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호서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농협은행 천안시지부이다.

시와 관계기관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발굴 및 홍보 ▲기술지원, 장비활용, 자금지원, 투자연계 등 창업 지원사업 연계 ▲기타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스타트업 육성 역량과 자원을 서로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및 대한민국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스타트업 혁신도시로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호두육포 특별 프로모션

홈플러스와 특별 프로모션 '몰빵데이 시즌2'행사 맞춰 함께 진행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시설장 공성수, 이하 일터)는 홈플러스 천안신방점과 '호두육포'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홈플러스와의 특별 프로모션은 홈플러스 창립 24주년을 기념해 진행하는 '몰빵데이 시즌2' 행사 시기에 맞춰 함께 진행된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홈플러스 천안신방점 3층 롯데리아 앞 행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존 제조업 위주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 모델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호두육포는 맛있는 간식임과 동시에 장애인 재활까지 도울 수 있어 지역사회와 온라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호두육포는 일터가 HACCP(해썹) 인증을 받은 광덕면 소재 농업회사 법인 나래푸드(주)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협약을 체결하면서 탄생했다. 육포에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호두를 가미한 호두육포는 두뇌, 피부건강에 좋아 모든 연령층에서 간식용으로 사랑받는 제품이다.

공성수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시설장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근로 장애인과 훈련 장애인 지원 및 다양한 직업훈련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에 도움이 된다"며, "이번 특별 프로모션이 지역사회에 장애인보호작업장과 호두육포, 장애와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두육포 또는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일터 대표전화(041-553-0705)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김정환기자

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우리동네 마음건강 캠페인 진행

정서적 고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위한 캠페인

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25일 쌍용5-2관리소 아파트에서 정서적 고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우리동네 마음건강'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우울선별검사 ▲코로나블루 심리지원 ▲정신건강정보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스스로 마음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지역주민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내 아파트와의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동네 마음건강' 캠페인을 진행해 정서적·심리적 위험군의 조기 발견, 치료 연계, 정신건강 정보 제공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도모하고자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심리 상담, 정신질환과 관련한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041-578-9709~11)로 문의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천안시 '세계 금연의 날' 동영상 홍보 캠페인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제34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비대면으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주간 집중홍보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세계 금연의 날은 매년 5월 31일 흡연의 심각한 폐해를 알리고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기념일로 올해는 '담배는 노답(No答) 지금 노담(No담배), 담배와 거리두기'라는 슬로건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동영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남구보건소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따로 또 같이 건강위해 으쌰!' 비대면 프로그램과 연계·추진해 제작했으며, 천안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해 금연 홍보동영상으로 금연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민 건강증진 도모와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 환경조성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보건소(☎041-521-5086)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김정환기자

천안시립미술관, 202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천안시립미술관이 5월 26일부터 202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애들아 뭐하니? 미술관에서 놀자' 1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예술감상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 소양을 키우고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애들아 뭐하니? 미술관에서 놀자' 1기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지구의 시간을 읽는 방법 <사이의 거리, 9시 47분>' 전시와 연계해 인간과 지구환경의 관계를 예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작품을 통해 다양한 예술표현방법을 탐구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5월 26일부터 선착순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미술관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지구환경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고, 문화예술 경험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소방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맹훈련 서천소방서(서장 구동철)는 다음 달 10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2021년 충남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대비해 서천소방서 대표 '장항고등학교 일반인 심폐소생술팀'이 맹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주경찰서,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교실 운영 공주경찰서(서장 심은석)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관내 결혼이주여성 20명 대상으로 오는 31까지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한다.

aT 김춘진 사장, 새만금개발청 방문‥ 식량 전략비축기지 조성및 사업 추진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왼쪽)이 25일 전북 군산에서 새만금개발청 양충모 청장(오른쪽)을 만나 국가식량안보 확립을 위해 공사에서 추진 중인 식량콤비나트 구축과 관련해 향후 식량 전략비축기지 조성 및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각장애인들 안전 위협하는 '점자블록'

"점자블록 따라가면 네거리 한복판" 점자블록 대한 실태점검과 관리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점자블록 위에 전봇대가 설치돼 있거나 점자블록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중간으로 향해있는 등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민원분석시스템으로 수집된 '점자블록' 관련 민원이 2,847건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그 이전 3년간('15.4월~'20.3월) 접수된 1,672건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치로, 무관심 속에 방치된 점자블록의 문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유형별로 보면 ▲점자블록 파손·훼손(1,257건) ▲불법주차 차량 및 다른 시설물이 점자블록을 침범(603건)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설치 요구(596건)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325건) 순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민들은 파손·훼손된 점자블록이 그대로 방치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가장 우려했고, 실제로 사고를 목격한 사례도 있었다.

또 불법 주차된 차량이나 다른 시설물이 점자블록을 침범해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점자블록 위에 노점을 설치하고 물건을 쌓아두거나 심지어 점자블록을 무시하고 버스정류장이나 전봇대가 설치된 사례도 있었다. 더욱이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기 어려운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등 장소에 점자블록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점자블록이 있더라도 설치 방법에 맞지 않게 잘못 설치되어 다시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한 민원인은 횡단보도를 향해야 할 선형블록이 교차로 중간으로 향해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외에도 설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된 점자블록이 다양한 불편을 일으키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지자체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건에 대해 즉각 조치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조속한 설치 ▲기준 미비 및 방향 유도에 오류가 있는 점자블록 재설치 ▲지역 주민참여를 통한 점자블록 실태조사 범위 확대 등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점자블록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에서 개선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직원 확진…4동 10층 폐쇄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인 특허청의 심사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25일 정부대전청사관리소에 따르면 이 직원은 전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세종시 소담동 새샘3단지 어린이집 원생의 가족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정부대전청사관리소는 이 직원이 근무하는 4동 10층 전체를 폐쇄하고 동간 이동제한 조치하는 한편, 해당 사무실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4동 전체에 대해 밤새 방역작업을 마쳤다.

정부대전청사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김태선기자

daejeontoday.com

대전서부경찰서, 전국 무대 무인 점포 절도범 검거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9일 사이 전국(서울, 대전, 부산 등) 9개 도시 무인 업소(편의점, 빨래방, 주유소 등) 32곳에 침입해 무인계산기(키오스크)를 부수고 9천5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도한 혐의로 A(25세)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25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교도소를 출소한 다음날부터 범행을 시작해 검거 시까지 심야시간대 무인 점포를 범행의 대상으로 선정했으며,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범행을 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도시에서는 1일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

한편, 피의자는 주유소에서 현금을 절도 후, 주유소 업주의 소유인 7천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훔쳐 타고 도주하는 대범함을 보이고, 절취한 현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점포내 무인계산기에 보관된 현금을 노린 유사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무인계산기등 "현금이 보관중인 장소에는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앞으로 경찰은 향후 범죄 취약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청양소방서, 노후 김치냉장고의 잇따른 화재 발생

'위니아 딤채' 제품 리콜 당부

청양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최근 노후 김치냉장고의 잇따른 화재 발생으로 가정에서 사용 중인 김치냉장고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딤채 제품이라면 신속히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은 뚜껑형 구조의 모델로 제품 노후에 따른 내부 부품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지속해서 발생해 지난해 말부터 업체에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총 리콜 대상 278만대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126만대(45.2%)만 리콜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의 모델명 또는 표시사항의 형명과 제조기간을 확인 후 해당 제품일 경우 위니아 딤채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을 통해 부품교체, 보상 판매 등의 리콜 조치를 받으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상시전력을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경우 10년 이상 썼다면 전기 배선의 절연 성능이 떨어지고 내부에 먼지가 쌓여 누전이나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노후화된 가전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고 습기나 먼지가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조류인플루엔자 사실상 종료

5월 10일 심각에서 관심단계로 낮아져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5월 10일 심각에서 관심단계로 낮아졌으며,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다시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발생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질병관리원은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해 겨울철새가 도래하기 전까지 국외 번식지에서 조기 감시 및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겨울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한 후에는 주요 철새도래지와 조류인플루엔자 상습발생지역 등을 핵심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찰 및 관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세종시, 5년 연속 원유 숙련도 평가 적합 판정

15개 항목 전체 우수‥정확한 원유검사 체계 운영 평가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윤창희)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원유검사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검사 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원유검사 숙련도 평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세균수, 체세포수, 유지방, 유당, 유단백질 등 5개 항목에서 3가지 농도, 총 15개 샘플 값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특히 원유검사는 원유의 위생과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젖소농가에 지급되는 원유의 대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농가와 업체 모두로부터 공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는 낙농진흥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지난 2016년 유업체로부터 원유검사를 위탁받아 원유공영화 검사체계를 구축한 이래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숙련도 평가 결과에서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전체 평가항목 모두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원유검사 분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번 원유검사 숙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원유검사 장비와 검사기술을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검사체계와 결과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김태선기자

당진소방서 순성면 의용소방대

재능기부 통해 소방장비 제작

당진소방서 순성면 전담의용소방대(대장 이경열) 이원두 대원은 그동안 일일이 호스를 말아야 하는 번거로움를 해소하고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킬 수 있도록 화재진압대를 위해 재능기부를 통해 수동식 소방호스 말이를 제작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생활 속 안전수칙, 영상으로 만나요

충남안전체험관, 응급처치 등 13개 영상 '충남소방 마실TV' 게시

충남안전체험관 현직 소방안전교육 강사들이 생활 속 안전수칙을 담은 영상을 제작, SNS를 통해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유튜브 채널 '충남소방 마실TV'에 충남안전체험관 카테고리 신설과 함께 안전수칙 영상을 게시, 운영을 본격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게시한 안전수칙 영상은 인재와 자연재난, 응급처치, 어린이 안전체험 등 13개 주제로 나눠 제작했다.

영상 내용을 보면, 도심 사고와 관련해서는 고층 건물과 실내 화재, 교통사고, 철도 관련 사고 발생 시 대피요령과 주의사항을 담았다.

또 태풍, 지진,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난은 원인 및 위험성을 분석해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선박 등 수난 사고와 관련해서는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꼭 알아야 하는 행동요령을 짚었다.

어린이를 위해서는 집안 안전위험 요소와 어린이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119 신고 방법, 소화기 사용법 등을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김정환기자

태안소방서장, 고남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 격려 등

수난사고 취약지역 현장방문

태안소방서 이희선 서장은 지난 24일 수난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순찰 활동 중인 고남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고남면 장곡리 바람아래해수욕장을 방문했다.

최근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연일 계속되면서 관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늘어나, 수난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바람아래해수욕장 일대를 대상으로 인명구조장비 점검 및 수상·해변 순찰근무 등 대응태세를 확인을 위해서이다.

또한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휴일과 사리 물때에 맞춰 예방순찰을 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지도 및 대피 홍보방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고남면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일일이 격려했다.

이희선 서장은 "관광객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수난사고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아산소방서, 아파트 특성에 따른 피난방법

아파트 화재 시 피난방법 홍보

아산소방서(서장 김장석)는 아파트 화재 시 아파트에 설치된 피난시설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몰라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특성에 따른 피난방법 홍보에 나섰다.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화염과 연기로 복도·계단을 통한 대피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세대 내에 있는 피난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대피하는 방법으로는 경량 칸막이, 실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김준환 예방교육팀장은 "피난시설은 아파트 화재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이라며, 편의 보다는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피난시설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방법을 알아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편고객센터, 2021년 KSQI 택배부문 우수 콜센터 선정

한국우편사업진흥원(원장 민재석)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하는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Korean Service Quality Index) 콜센터 부문조사에서 2021년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인해 우편고객센터는 3년 연속, 통산 10회 우수콜센터로 선정됐으며, 택배부문 우수콜센터는 우편고객센터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우수콜센터는 국내 주요산업별 콜센터를 대상으로 수신여건, 상담태도 등을 평가해 서비스 품질지수 90점 이상을 기록한 기업의 콜센터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콜센터는 지속적인 혁신활동으로 우수한 운영 시스템과 고객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서비스 품질을 갖춘 한국을 대표하는 콜센터를 의미한다.

우편고객센터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재택상담시스템 도입과 제2우편고객센터 구축을 통해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우편톡 서비스·채팅상담 등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

민재석 원장은 "코로나 19 상황에 대응해 고객센터의 가장 기본인 고품질 상담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향후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편고객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경영방침을 밝혔다. 송병배기자

대전모금회, ㈜한화종합연구소에 감사패 전달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태희 회장(왼쪽)이 25일 ㈜한화종합연구소를 방문, 채훈 소장(오른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있다.

기업 2곳 중 1곳 "MZ세대 잡기 위해 노력 중"

<사람인>조사결과 … MZ세대 인재 관리에 어려움 느껴

새로운 성장동력인 MZ세대는 이전 세대와 확연히 다른 특성으로 기업들의 고민이 깊은 가운데, 기업 2곳 중 1곳은 MZ세대 인재를 영입하고 장기 근속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271개사를 대상으로 'MZ세대 인재 유입과 장기 근속을 위한 노력 여부'을 조사한 결과, 49.1%가 '별도로 노력하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MZ세대 인재 유입과 장기 근속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이전 세대와 사고, 행동 양식 차이가 커서'(41.4%, 복수응답)가 1위였다. 다음으로 'MZ세대가 회사를 이끄는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어서'(37.6%), 'MZ세대 직원이 많이 필요한 업직종이어서'(27.1%), 'MZ세대의 지원율이 낮고, 퇴사율이 높아서'(23.3%), '채용, 업무 방식이 낡아 개선이 필요해서'(12%) 등의 순이었다.

이들 기업이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는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의 근무환경 조성'(51.9%,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워라밸을 지키는 업무 방식'(48.9%)이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개인 취향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 형성'(39.8%), '시차출퇴근/유연근무제 도입'(28.6%), 'MZ세대 눈높이 맞춘 복리후생'(23.3%),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 평가와 보상'(22.6%), '개인 역량 및 커리어 개발 적극 지원'(18%) 등을 꼽았다.

이런 활동들로 인해 42.1%(복수응답)는 MZ세대 인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39.1%는 장기근속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때, 인재 유입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기업(56개사)들은 이전에 비해 입사 지원이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 근속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52개사)들의 경우, 이전에 비해 퇴사율이 약 8.7%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MZ세대 직원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전체 기업의 50.6%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개인주의가 강하고 조직보다 개인을 우선시함'(67.9%, 복수응답)을 첫번째로 꼽았다. 이어서 '퇴사/이직을 과감하게 실행함'(58.4%), '불이익에 민감함'(38%), '강한 성과보상을 요구함'(24.1%), '언행이 거침없음'(21.2%) 등을 들었다.

이렇듯 MZ세대 직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단연 '사고, 행동 방식이 너무 달라서'(65.7%, 복수응답)였다.

이밖에 '기존의 인사 제도로는 관리가 어려워서'(33.6%),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서'(22.6%), '이전 세대와의 마찰이 심해서'(21.9%) 등이 있었다.

반면, 어려움을 겪지 않는 기업(134개사)들은 그 이유로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36.6%, 복수응답), '조직 구성원이 대부분 젊어서'(29.9%), 'MZ세대 특성이 강하지 않은 직원을 주로 뽑아서'(18.7%), '업직종 특성상 MZ 세대가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없어서'(18.7%), 'MZ세대에 맞춘 인사 제도, 문화가 있어서'(12.7%) 등을 꼽았다.

한편, 전체 응답 기업의 절반(46.5%, 복수응답) 가량은 MZ세대 인재가 회사 생활에서 가장 원하는 것으로 '워라밸, 개인시간 보장'을 꼽았다. 이외에 '많은 연봉과 보너스'(15.1%), '명확한 업무 디렉션과 결과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12.5%), '자유롭고 수평적인 문화'(10.3%), '개인의 개성과 취향 인정'(7%)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정복 기자

학생 생활지도 '관계중심'으로 전환

세종시교육청, 기존의 처벌 중심에서 미래 역량 기를 수 있는 관계중심

세종시교육청이 올해부터 학생 생활지도 방식을 기존의 처벌 중심에서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전환한다.

관계중심 생활교육은 의사소통과 공동체 역량 등 관계역량 함양과 갈등에 대한 회복 적 접근을 기반으로 협력과 존중의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25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 학년, 학급 단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실천학교, 실천학년, 실천학급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온 도시가 건강한 관계를 통해 평화로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중심의 생활교육을 위해 학교 안팎에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도시 문화도 조성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민 · 관 · 학(세종경찰청,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회복적 정의세종시민연구모임 등)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회복적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시민을 대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대중 강연을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 등 모두 6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김태선 기자

충남교육청, AI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 현판 제막식 개최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24일 논산대건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부터 충남교육청은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일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AI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논산대건고, 천안오성고, 천안월봉고 3개 학교가 운영 중이며, 올해 부여고등학교를 새로 선정했다.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청양 학교 문화 만들기

청양교육지원청, 동학년 교사 교육과정운영협의회 개최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임동우)은 25일 대회의실 및 중회의실, 장학자료실에서 관내 초등학교 간 동학년 교사 교육과정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청양 학교 문화 만들기'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간 동학년 교사들이 각 학급에서 운영한 교사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나누고 지속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6학년은 합천초등학교 김규섭 교사의 학급교육과정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1학년 교사들은 EBS '당신의 문해력'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하고 효율적인 한글 지도방안에 대한 자유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공유했다.

이러한 학교 간 동학년 교사교육과정 운영 사례 나눔을 통해 작은 학교 학급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신장하고, 소통과 공감을 통한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임동우 교육장은 "학교 간 동학년 교사의 활발한 소통과 수업 개선 노력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청양=정상범 기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내 초 · 중 학생 대상으로 비대면

'제1회 사계백일장대회 시상식' 개최

지난 20일 논산문화원에서 제1회 사계백일장대회 시상식과 전시회가 열렸다.

사계 김장생 선생의 학문과 스승존경의 얼, 스승의 날 발원지 논산을 기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승존경 풍토조성을 위해 논산계룡지역 관내 초, 중 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시상식이 개최됐다.

지난 4월말부터 약 1,300여명이 신청한 작품 중 공정한 평가를 거쳐 132편의 입상작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작품들은 논산문화원 전시실에 20일부터 23일까지 전시된다.

이진구 교육장은 시상식 자리에서 "고사리같은 손으로 그린 그림과 함께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글들이 심금을 울리고, 너무나아름답다. 전시회장인 논산문화원을 찾아 전시작품들을 감상하시길 적극 권해본다."고 말했다.

논산=김성구 기자

'리(Re)-본(Born) 플러스(Plus) 프로젝트'

금산고, 25~31일까지 학생과 교직원 · 학부모 대상 전개

금산고등학교(교장 조익수)는 5월 25~31일까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리(Re)-본(Born) 플러스(Plus)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신체 활동 증진을 통해 정서적 긴장 및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흡연 예방 및 금연을 도모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만예방으로 면역력 향상 및 자기 건강능력을 키우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활동으로 ▲ 건강걷기 챌린지는 '네이버밴드'와 '걷쥬' 어플을 통해 챌린지 영상 인증 참여와 건강 걷기 걸음수 랭킹 인증이 진행되며, ▲ 흡연예방 활동으로는 흡연 예방의 의미를 담은 비밀 쪽지 찾기, 흡연 타파 게임, 우리동네 Clean Zone Map 만들기, 학부모와 함께하는 세계 금연의 날 행사 활동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참여 중심 활동을 전개한다.

금산=이정복 기자

대전교육청, 햇살 하나 거름 셋! 꽃피는 학생자치활동

학생 네트워크단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 교육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대전교육청 대강당 및 회의실에서 고등학교 학생회 네트워크단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교 학생회 네트워크단은 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 대표 학생들로 구성하였으며 학교별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교내 학생자치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네트워크단이 협업하여 교외 자치활동을 운영하고, 교육공동체 회의 참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교육은 학생자치 의미에 맞게 학생이 직접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단위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을 꽃피울 수 있도록 햇살과 같은 지적 에너지가 될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특강과 학생자치활동 운영의 밑거름이 될 좌담회1(학생자치 좌담), 좌담회2(리더십 좌담),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이루어졌다.

21일에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주권의 가치', '청소년의 민주적 리더십과 실천 사례'라는 주제로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초빙교수인 박기령 박사의 특강을 시작으로 대전고등학교 학생자치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학생회가 기획 · 운영하는 우수사례 중 '대(大)GASTUDY'가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다. 대GASTUDY란,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SNS에 올려 학습 동기부여 및 공부 방법을 공유하는 활동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멘토-멘티 활동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24일에는 '토론의 달인이 되는 법', '미래 유권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전선거관리위원회 박기령 초빙교수의 지도하에 '경청하기, 질문하기, 토론하기' 과정으로 좌담회와 학생들의 실습이 이루어졌다. 25일에는 '자치활동 진지한 편! 21세기 민주시민 리더되기'라는 주제로 리더십 교육 전문가 박상희(대전관평초 교사) 등 5인과 학생들의 리더십 좌담회가 이루어졌다.

김정환 기자

부여교육지원청, 2021년 부여교육지원청 주요 중점사업 등

2021 부여지역 교육재정 설명회 개최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흥주)은 24일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약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부여지역 교육재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충남교육 주요 정책과 예산편성 현황, 2021년 부여교육지원청 주요 중점사업 및 학생 · 학부모 · 주민참여예산 제도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수렴된 의견들은 재정 여건과 세부 검토과정을 거쳐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참여위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교육청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교육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교육재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흥주 교육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충남교육재정에 대한 참여와 소통의 민주적 교육행정 실현과 교육수요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라며 충남교육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주정명학교 '자신감 up, 취업역량강화' 특강

공주정명학교(교장 박용주)는 지난 12일과 24일 2회에 걸쳐 전공과 1,2학년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특강을 실시했다.

기초직업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1회차 특강에서는 명패 만들기, 자기소개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했다.

또한 이미지 컨설팅을 통해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위생관리 방법을 익히고 인사법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직역량강화를 위한 2회차 특강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성공적인 면접 전략을 익히고 학생들이 직접 모의 면접에 참여하며 구직 상황을 연습하기도 하였다.

공주=정상범 기자

아산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위촉식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4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모모니터링단을 위촉했다. 2021 부모 모니터링단은 부모 및 보육 · 보건전문가 등 6명이 3개 조로 구성됐으며 위촉기간은 5월 24일부터 오는 12월 31일 까지다.

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추첨 신청 내달 1일 ~ 7일까지 결과발표 9일

여름 성수기 이용 추첨 신청 접수 시작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내달 1일 오전 10시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여름 성수기(7월 15일 ~ 8월 24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한 추첨 신청을 받는다.

추첨 신청은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에서 가능하고, 추첨결과는 9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당첨자는 9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사용료를 결제해야 하고, 결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당첨이 취소된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상황에 따라 성수기 추첨에 당첨됐어도 이후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주요 사항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전체 객실 중 1055(49%)개 객실만 6월에 진행된다.

6월 추첨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객실은 추후 코로나-19 확산 상황등을 고려해 7월 중 추첨 접수 예정이다.

숲나들e 누리집에 가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인당 객실 또는 야영시설 1회에 한해 최대 2박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의 마지막 날인 8월 24일의 경우 1박 2일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공정한 추첨제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KT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BaaS를 통해 구현된 추첨 방식을 통해 성수기 추첨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병배 기자

기술 혁신 창업 · 벤처기업 성장 기반 구축

道-조달청, 25일 업무협약 체결…혁신제품 판로 확대 등 지원

충남도는 25일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 김정우 조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청과 혁신조달 성과 확산 및 창업 · 벤처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우수 창업 ·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혁신조달 성과를 확산시키고자 마련했다.

'혁신조달 제도'는 행정 ·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혁신제품에 대한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공공서비스 개선 및 기업의 판로를 확보 · 지원함으로써 민간 부분의 혁신과 성장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수요 발굴 및 판로 지원 ▲도내 혁신제품 발굴 및 구매 ▲도내 혁신제품 시범 구매 및 실증 지원 ▲혁신조달 정책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 도내 벤처창업조달상품의 홍보 및 구매 등 판로 지원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나라 상품 등록 신청 시 도의 추천을 받으면 조달청 기술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혁신제품 조달을 통한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시장에 없는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 등 기술혁신의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벤처나라를 통해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그동안 도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모토로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에서부터 마케팅, 판로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왔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공공이 먼저 혁신제품의 처음 수요자가 돼 시장성과 성장성을 일으키고 민간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지면 몇몇 벤처기업은 유니콘 기업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성장은 지역경제의 발전과 도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혁신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조달청과 협력해 지역 내 우수한 창업 · 벤처기업의 판로 확대와 공공수요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신평면 신당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준공

당진시, 28억 투입 3.596km 맨홀펌프장 4개소 · 배수설비 19가구 등 설치

당진시는 소외된 농어촌지역에 하수도를 보급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 수역 수질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신평면 신당리 및 도성리 일원 생활하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지난 2019년 11월 착공해 최근 1년 5개월여간의 공사를 끝내고 준공했다.

신당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28억 원(국비 19억, 시비 9억)을 투입해 하수관로 3.596km, 맨홀펌프장 4개소, 배수설비 19가구 등의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번 달 14일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공사를 통해 개인 정화조를 폐쇄하고 공공하수도로에 연결해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아 정화함으로써, 악취개선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삽교호 수질오염 방지와 동시에 정화조 수거비용 절감으로 주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삽교호뿐만 아니라 대호호, 석문호 상류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비를 확보해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조폐공사-완도군 '완도사랑상품권' 업무협약

완도군이 지류(종이)에 이어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을 선보인다.

한국조폐공사(www.komsco.com)는 전남 완도군청 회의실에서 반장식 사장과 신우철 완도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군청과 '완도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조폐공사와 완도군은 종이 상품권외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보안성이 뛰어난 카드형 완도사랑상품권을 군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조폐공사는 상품권 구매한도를 통합 관리, 부정유통을 막을 수 있는 통합관리서비스도 완도군에 제공중이다.

카드형 완도사랑상품권은 조폐공사 스마트폰 앱(App) '지역상품권 chak(착)'에서 살 수 있으며, 가까운 농 · 축협에 방문해서도 구매 가능하다.

조폐공사는 종이, 모바일(QR형), 카드형 상품권과 상품권 구매한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서비스 등 지역상품권 풀 라인업을 구축해 지자체에 서비스하고 있다.

반장식 사장은 "카드형 지역상품권 도입으로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의 행정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드론 활용한 벼 재배기술 선보여

공주시, 드론활용 등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 실시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24일 정안면 대산리 일원에서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 활용 벼 직파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는 김정섭 시장과 심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삼광벼대산뜰작목반, 농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드론을 활용한 벼 재배단지를 육성할 계획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벼 재배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에 나선다.

올해 시범사업은 삼광벼대산뜰작목반의 21.7ha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날 시연을 선보인 농업용 드론을 비롯해 무인보트와 종자소독기, 저소음발전기 등은 시에서 지원했으며, 운영은 작목반에서 맡는다.

드론을 활용해 직파재배 할 경우 벼 기계이앙 대비 10a당 노동시간이 1시간 33분에서 2~3분으로 대폭 단축되는 등 노동력이 85%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부족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농촌인력 부족문제가 심해지고 있어 드론과 무인보트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재배기술이 농가 소득증대와 쌀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벼병해충 항공 공동방제 및 병해충 무인헬기 민간방제단 구축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농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드론이용 직파재배 등 생력재배기술 확산을 위해 생육상황을 면밀이 관찰 기록한 후 평가를 거쳐 내년도 농업인실용교육과정에 별도 교육시간도 마련해 운영할예정이다.

김정섭 시장은 "농업의 현안문제 중 하나인 농촌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드론과 자율주행 농기계, 스마트팜 등과 같이 4차 산업 혁명기술을 농업현장에 적용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농업분야 뉴딜사업을 적극 발굴해 침체된 농업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롯데百 대전점 산학협력 성공 모델 '헤드스파 K' 소개합니다

"백화점은 일반 매장보다 문턱이 높아 입점 자체가 어려운데 지난해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 먼저 입점을 제안했고, 지금은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며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장하윤 헤드스파K 매니저는 이야기 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 5층에 위치한 두피관리 마사지샵 '헤드스파K'는 최초로 백화점에 오픈 한 산학협력 브랜드이다.

'헤드스파K'는 한남대학교 대덕밸리 캠퍼스 이노비즈파크에 입주 하고 있는 '에코바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로 롯데백화점 대전점과의 인연은 작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제품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 먼저 에코바이오측에 지하1층에 팝업스토어(임시매장)를 제안했다.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탈모방지샴푸, 기능성화장품 등 제품을 판매하며 약25백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후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는 지난해 8월 5층 현재의 위치에 두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두피 관리 마사지샵' 정식 입점을 제안했다. 지난해 8월 오픈 이후 월평균 2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국 1등 매장으로 성공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에서의 성공적인 오픈을 바탕으로 올 해에는 3~4곳의 매장을 다른 곳에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고, 백화점 입점도 추진 중이다.

송병배기자

홍성군 2050 탄소중립 실현위한 업무협약체결

홍성군이 25일 기후위기 극복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충남 최초로 NH농협 홍성군지부와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은 녹색생활의 실천을 희망하는 군민을 위한 금융 우대 상품을 개발하고 홍성군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분리수거용기를 지원하는 등 탄소중립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탄소중립은 사회 전반의 변화와 실천 없이는 실현 불가하므로 이번 업무 협약이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자발적 기후행동 실천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주 NH농협 홍성군지부장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홍성군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뜻깊게 생각하며, 녹색도시 홍성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협력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탄소중립 2050'은 지구온도상승을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늘려서 2050년까지 전지구적으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홍성=김정환기자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효율성 극대화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유용 미생물 거점 단지 조성 등

예산군 농업 기술센터는 대술, 신양, 광시, 대흥면 등 센터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센터는 지난해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유용 미생물 거점 단지를 조성했다.

유용 미생물 거점 단지는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EM 저장 탱크 ▲저온저장고 ▲운반 차량 등을 갖췄으며, 센터에서 생산한 EM을 임대사업소까지 운반 저장 탱크에 보관해 지역민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농업확산은 물론 기존 임대사업소 보관창고 활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센터는 지난해 유용 미생물 거점 단지를 통해 관내 666 농가에 급여용 미생물 1468ℓ, 냄새 제거용 미생물 2430ℓ, EM 3만4800ℓ를 각각 공급해 축산 및 일반 농가에 큰 도움을 줬다.

올해에는 5월 현재 215 농가에 1만 2536ℓ의 유용 미생물을 공급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가가 미생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산림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1톤 다목적 방제 차량을 활용해 공동방제가 어려운 협곡을 낀 과수원 근처 산림, 공원, 휴경지, 도로변 등을 선제적으로 방제할 예정이다.

예산= 박제화기자

동정

후원금 전달식

오세현 아산시장 = 26일 오전 10시 30분 시장실에서 열리는 저소득층 후원금 전달식, 오전 11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촉식, 오후 2시 글로벌가족센터에서 열리는 부부의 날 및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 참석.

물품 전달식

김홍장 당진시장 = 26일 오전 9시 30분 당진시청 목민홀에서 열리는 이웃 돕기 물품 전달식에 참석. 오후 2시 당진시청 당진홀에서 개최되는 '2021 당진시 수소경제 포럼' 참석.

추진상황 보고회

가세로 태안군수 = 26일 오전 9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2022년 정부예산 확보 2차 추진상황 보고회'에 참석.

운영회의

김돈곤 청양군수 = 26일 오전 11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회의 참석.

당진시, 한국동서발전과 환경협약 체결

2025년까지 2조 4734억 원 투자, 온실가스 저감에 총력

당진시는 지난 24일 당진발전본부 대회의실에서 김홍장 시장과 한국동서발전(주)당진발전본부(이하 당진본부) 이창열 본부장이 깨끗한 당진 하늘을 만들기 위한 '발전소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협약'을 체결했다.

당진시와 당진본부의 환경협정은 2014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강화된 것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당진본부는 발전소 환경설비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에 2025년까지 2조 4734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

또 이번 협약에는 ▲환경설비개선 등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 ▲옥내 저탄장 건설 ▲부산물 재활용 확대 ▲신재생 발전설비 운영·확대 ▲바이오연료 사용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홍장 시장은 "기후변화는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 지구적 이슈이며, 탄소중립은 우리 세대가 책임성을 가지고 이뤄야 할 지속가능한 과제"라며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과 당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당진본부가 참여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창열 본부장은 "당진본부가 공기업으로서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해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첨단 환경설비를 추가 도입해 당진시의 탄소중립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본부는 2014년 시와 맺은 환경협정 이행과 2017년 자발적 감축협약을 토대로 환경설비를 개선해 2020년 12월 말 기준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저감 목표인 40%를 상회하는 80.8%(7,135톤)을 감축한 바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가세로 태안군수, 발품행정으로 정부예산 확보 '총력'

지난 24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찾아 현안사업 국비요청

가세로 태안군수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직접 나섰다.

군에 따르면, 가 군수는 지난 24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를 찾아 영목항 국가어항 지정, 하수처리시설 확대 등 태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우선, 예정대로 하반기에 영목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고시 해줄 것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12억 원의 반영을 해수부에 요청했다.

이어, 방파제, 물양장 조성 및 호안 정비, 부지매립 사업 등과 관련해 영목항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가 군수는 환경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백사장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학암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 고남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과 관련해 각각 5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가세로 군수는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를 수시로 찾아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아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징수전담반을 운영해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금융, 급여 압류의 채권확보와 부동산 및 차량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실시 한다.

특히 체납액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지난달 모든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지방세 납부는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 사이트(위택스, 지로), CD/ATM기(신용·현금카드)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기영 징수과장은 "안정적 재원확보와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징수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납세자 스스로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영세기업 및 서민 생계형 체납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해 분할납부 이행 신청자를 검토해 체납처분 유예 또는 행정제재 유보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온세미로 지방세 연구동아리 발족

청양군(군수 김돈곤) 소속 세무직 공무원들이 세원 발굴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청양 온세(稅)미로' 연구동아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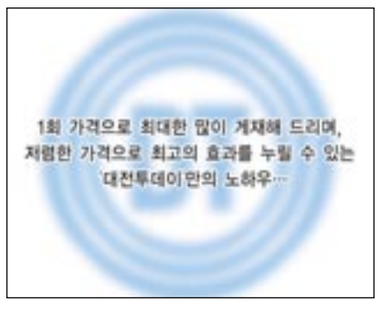
온세미로는 순수 우리말 온새미로(언제나 변함없이)에서 착안한 말로 언제나 변함없이 세금 관련 연구에 집중하자는 의미를 담았으며, 한재선 회장과 안영수 총무 등 6명이 매월 2회 이상 토론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온세미로는 세수 여건이 열악한 청양군의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새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를 중심으로 납세자 불편 사항 개선방안 마련까지 전 방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개선 과제는 2022년 상급기관 건의 사항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한재선 회장은 "세원 발굴과 납세자 권익 보호, 현장 사례 축적은 세무직 공무원이 갖춰야 할 중요 자질"이라면서 "각자의 전문 영역을 공유하면서 민원 해소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청양군, 청년농업인 멘토링 컨설팅 교육 진행

고추, 구기자, 표고버섯, 멜론, 한우 등 5개 강좌를 월별 1회 내외 운영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는 지난 20일부터 멜론 재배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작물 재배 경험이 풍부한 선도 농가의 노하우를 전하는 멘토-멘티 컨설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멘토-멘티 컨설팅은 선도농업인이나 전문가가 보유한 재배기술과 농업소득 증대 비결을 전수하기 위한 것으로 고추, 구기자, 표고버섯, 멜론, 한우 등 5개 강좌를 월별 1회 내외 운영하고 있다.

멘티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한 지 얼마 안 된 40세 이하 젊은 청년 32명이다. 멜론 강좌 1회차 교육은 청양읍 청수리 박형민 천하일미작목반장의 농장에서 진행됐다.

박형민 멘토는 품종, 당도, 비료주기, 연작·병충해 등 재배와 거래처, 직거래, 포장방법 등 경영관리에 대한 수십 년 비결을 아낌없이 전수했다.

멜론 강좌 향후 일정은 과채 연구소 방문, 전문가 현지 컨설팅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작물 재배 경험이 풍부한 선도 농가의 노하우를 청년 농업인들이 쉽게 접하면서 영농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마을공방(소득기반형) 육성사업 공모 선정

송곡2리 마을내 '은행나무길 다(多)행 BANK 공방' 조성

2021년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 지역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지역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주민소통과 갈등예방을 위한 주민소통형 ▲마을공동체의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반형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기존 마을공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세가지 유형으로 공모가 이뤄졌다.

이번에 아산시가 선정된 사업은 송곡2리 마을내 유휴공간(구 송곡초등학교 관사)을 활용해 '은행나무길 다(多)행 BANK 공방'을 조성하고, 은행나무길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창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소득기반형 사업이다. 그동안 아산시는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민관 거버넌스형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새로 구성했고, 매월 정기적 운영으로 사회적 경제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함께 만들고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주관 사회적경제협업체계 구축사업 선정에 이어 이번 마을공방 육성사업에도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최종 10개 사업(주민소통형 6개 사업, 소득기반형 2개 사업, 인센티브 2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사업당 5000만 원에서 2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깨끗한 바다 만들기 포스터 공모전

태안군, 26일부터 31일까지 공모신청서 및 응모 작품 접수

태안군은 오는 31일 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아 관내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깨끗한 바다 만들기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코로나19여파로 중단됐던 깨끗한 바다 그리기 사생대회의 명맥을 잇는 행사로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태안군이 주최하고 태안군의회, 태안교육지원청, 태안해양경찰서 등 3개 기관 공동 후원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18세 이하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와 학생들은 군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해양환경과 관련된 콘텐츠를 찾아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표어와 그림을 이용해 자유롭게 표현해 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총 52개 작품을 선발해 시상할 계획이며 선정된 작품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로비에 1년간 전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일회용품 과다 사용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바다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올해 충남도에서 태안군으로 운영이 이관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인지도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 중이며 공모전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041-670-2925)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정한기자

당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학생 마음건강 안전망 구축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업무협약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4일, 신성대학교·세한대학교·호서대학교 학생상담 센터와 대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대학생 마음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구본휘(당진시 평생학습과장), 신성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장 김혜영, 세한대학교(당진캠퍼스) 학생상담센터장 신승아, 호서대학교(당진캠퍼스) 학생상담센터장 두경희를 비롯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대학 학생상담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학' 간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해 대학생의 건강한 자립과 정신건강 증진 지원 및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체결하게 됐다.

한편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의해 1995년에 설립된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으로 청소년 안전망 운영, 부모교육, 청소년 전화 1388 운영, 찾아가는 상담, (부설)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등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밖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전화 041-360-6963-5, 041-357-2000으로 문의 가능하다.

당진=최근수기자

도고면장, 모내기 농가 현장 방문

아산시 도고면(면장 고영경)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관내 모내기 현장을 방문해 농민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영농 고충을 청취했다.

이번 영농현장 방문은 농번기로 영농에 바빠 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농가를 직접 방문해 면정을 홍보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주민밀착 행정을 위한 것으로 모내기철 동안 지속할 방침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추진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신규 위촉 · 회의 열려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이달 25일, 가족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식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운영 계획안에 대해 심의 · 의결했다.

2021년 주요 운영 계획으로 '군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서천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는 비전에 따라 예산 전 과정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예산편성에 다양한 계층 및 연령의 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 및 청년층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예산편성의 민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현재 한산, 마산, 문산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천군 주민주도형 마을 계획 수립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단계적으로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 과제와 사업을 발굴하는 주민주도형 마을 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마을계획과 연계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읍면 자치계획형 참여예산사업의 예산규모를 작년 대비 7% 늘려 지역 내 파급효과가 높고 읍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노박래 군수는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과 결산까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배움터' 수강생 모집

계룡시 엄사도서관, 생활 속 디지털 교육 실시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디지털 역량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된 시대에서 시민을 위한 무료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배움터'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개인별 디지털 역량 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 경제적 기회 차별과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 활용백서 ▲오피스 프로그램 기초 ▲파워포인트 자격증 취득 등 3개 과정 6개 반으로 구성되며, 오는 6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과목별 하루 2시간씩 주 2회, 총 6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계룡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gyeryon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 예정이다.

엄사도서관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은 만큼 개인의 디지털 역량 관련 지식습득과 활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다"며, "변화하는 시대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쉽고 다양한 디지털 역량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해 시민 여러분을 찾아 가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배움터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엄사도서관(042-840-3662)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여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2억원추가 지원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2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과 25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정현 부여군수와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자금을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12배까지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부여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이며 실제 부담 금리는 1.5%이다.

올해 이로써 군은 소망대출 등 6억원에 이어 총 8억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으로 출연하고 총 102억원을 지원하게 되었다. 2021년 현재까지 지원현황은 369건에 78억원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확대는 민선7기 공약사항"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여=김성구기자

계룡시 하반기 재정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코로나19 극복 '진력' 6월 1일부터 4일까지 접수… 98개 분야 259명 참여자 모집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21년 하반기 공공근로와 중장년층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와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시는 기존 재정일자리 사업에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인력을 확대 채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방역 강화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계획이다.

사업별 모집인원은 ▲공공근로사업 63개 분야 165명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29개 분야 79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6개 분야 15명으로 총 259명을 모집한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중장년층 일자리는 만 40세부터 65세까지의 근로능력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단,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소득조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 주소지 면 ·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연령 · 주소지 · 재산 · 참여횟수 등의 선발기준에 따라 259명을 선발해 7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효율적인 일자리사업 추진과 분야별 적성에 맞는 인력 선발을 위해 가급적이면 신청자가 희망하는 사업 분야에 인력을 배치해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 재정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종류와 선발인원이 지난 상반기에 비해 크게 증가해 취약계층 및 실직자 등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홍묵 시장은 "재정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기술 습득과 이를 통한 민간취업으로 연계 가능하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코로나 극복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계룡=주선웅기자

'2021년 논산시 공예품 경진대회' 열려

지역 공예인 열정 모인다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지역을 상징하는 공예품 및 관광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공예산업의 저변 확장을 도모하고자 논산시공예가협회(회장 박경화)가 주관하는 '2021년 논산시 공예품 경진대회'를 후원한다.

시는 관내 공예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 공예산업의 저변 확대를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해 경진대회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출품대상은 '논산'을 주제로 전통적 공예기능에 의해 만들어진 향토성 짙은 개발상품으로 ▲목‧칠공예 ▲섬유공예 ▲도자공예 ▲금속공예 ▲종이공예 작품 등이 해당된다.

출품작과 원서는 5월 27일 목요일 논산문화원 전시실에서 접수하며, 이후 지역 상징성 · 상품성 · 품질 수준 등의 항목들을 심사해 6월 중 28인에게 시상할 계획이다.

논산시에 주소를 둔 공예품 제조업체 또는 개인사업자(개인)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미 상품화 된 제조품이나 타 공모전에 출품해 입상한 작품은 접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공예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우수한 지역 공예품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는 공예 활동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후 상수관로 세척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계룡시, 엄사면 지역 노후 상수관로 세척 사업 착수

계룡시(최홍묵 시장)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엄사면 지역 노후 상수관로 10㎞ 구간에 대한 관로 세척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상수관 내부에 고압의 공기와 함께 강력한 수압의 물을 동시에 공급해 관로 벽면에 부착된 이물질 및 물때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시는 이번 상수관로 세척 사업을 통해 붉은 수돗물 발생을 미연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추진 시 주민 수돗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10㎞를 총 15개의 구간으로 나눠 단계별로 세척을 해나갈 예정이며, 작업 도중 불가피하게 세척구간에 대한 단수 및 녹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상수관로 세척사업으로 깨끗한 물 공급 효과가 증명되고, 시민 호응이 있을 경우 상수관로 세척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로 세척 시 내부 CCTV 촬영 확인을 통해 관로 상태 점검과 함께 수압 테스트를 통해 관로 누수가 발견될 경우에는 복구공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최홍묵 시장은 "상수관로 세척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들께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실천방안과 대안을 마련해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황명선 대표회장, 지방정부 탄소중립 특별세션 에 참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황명선 대표회장, 논산시장)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243개 모든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환경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5월 24일(월) 오후 8시, 서울DDP(D-숲)에서 '2021 피포지(P4G) 서울 정상 회의'의 사전 행사의 하나로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을 개최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황명선 대표회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역할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중앙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총괄계획 ▲정책의 틀 수립▲일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벤토리(통계) 구축 등을 담당하고,

기초지방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천방안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황명선 대표회장은 기초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광역 지방정부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기초지방정부의 대표인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하여 한정애 환경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반기문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의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승원 광명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국내인사와 도넛경제학의 저자인 영국의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사무총장, 카챠 되르너 이클레이 집행위원회 의장(독일 본 시장), 야콥 분스가르드 덴마크 오르후스시장, 다니엘 낀테로 콜롬비아 메데인시장, 엠 아닐 쿠마르 인도 고치시장 등 국외 주요 인사들이 직접 또는 온라인(영상)으로 참석하였다.

앞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협의회가 주도하여 설립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동정

모범청소년 표창 수여

최홍묵 계룡시장= 26일 오후 3시 집무실에서 모범청소년 표창 수여.

업무협약 체결식

노박래 서천군수= 26일 오후 2시에 서천교육지원청에서 충남 행복교육지구 제2기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고, 오후 4시에 장항읍행정복지센터에서 2021년 제1회 장항 열린 포럼 행사에 참석.

서천군 '주택임대차 신고제' 제외 대상

서천군은 오는 6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서 경기도 외 지역의 군(郡)단위 지역에 해당돼 신고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경기도 외 군 지역의 확정일자 신고건은 3만6천건으로 전국 217만건 기준 1.7% 비중을 차지해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기에 이뤄진 조치다.

신고의무에서 제외된 계약정보는 공공임대 입주자정보,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조사자료 등 대체정보를 통해 관리될 예정이다.

서천군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나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여군 세계유산 청소년 알리미 운영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알리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관내 고등학생 28명을 '2021년 부여 세계유산 청소년 알리미'로 위촉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선발된 부여 세계유산 청소년 알리미는 5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세계유산 역량강화 교육, UCC 제작을 통한 유적 홍보, 캠프와 현장답사를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가치를 널리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21일 청소년 알리미를 대상으로 진행된 역량강화교육에서는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이동주 센터장의 '유네스코 유산의 이해와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주제로 한 강좌와 백제문화원 양귀영 강사의 '백제금동대향로 속의 비밀'이라는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입교식에 참석한 한 학생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부여 세계유산 청소년 알리미로서 활동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부여=김성구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동 정

제130차 정례브리핑 실시

김정섭 공주시장= 26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제130차 정례브리핑을 실시한다.

외연도 풍어당제

김동일 보령시장 = 26일 오전10시 20분 외연도 일원에서 열리는 외연도 풍어당제 참석.

자율방재단 상반기 역량강화교육

문정우금산군수= 26일 오후 4시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금산군 자율방재단 상반기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

서산시,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드론 실증도시 선정

가로림만 지역에 배송… 연안사고 대처 등 실증 진행

서산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은 드론의 상용화를 돕고 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실증사업이다.

전국의 광주, 대전, 세종 등 광역 5곳과 성남, 대구수성구 등 기초 5곳이 선정됐으며, 이중 서산시가 충남 유일하게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사업 주제는 '드론과 함께하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이며, 주요 내용은 ▲도서지역 긴급물품 배송 ▲해안 연안사고 예방 및 대처 ▲갯벌 및 배송경로 영상 디지털 자료화 등이다.

살펴보면 도서지역 긴급물품 배송은 드론을 활용해 가로림만 유인도서인 고파도, 우도, 분점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배송하는 것이 목표다.

물품은 3Kg 내외의 긴급 식료품(배달음식), 상비약품, 방역, 배부물품 등을 드론을 통해 손쉽고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게 된다.

1회 왕복비행에 30km, 1시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가로림만 연안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해서도 활용된다. 서산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로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갯벌이 넓어 갯벌고립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해상 및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한 드론은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비상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게 된다.

갯벌 및 배송경로 영상 디지털 자료화는 배송경로와 갯벌복원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영상촬영, 지형자료를 합해 3차원 모델링을 하고 자료화하는 것이다.

자료는 안전한 배송경로 설정을 돕고 갯벌복원지역의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 가로림만의 살아 숨 쉬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홍보에게 홍보물로 사용하게 된다.

시는 6월 사업에 착수해 연내 해당 서비스 실증을 마치고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사업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사업 선정으로 드론을 활용한 지역주민 불편 개선과 편의 증진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며 "차질없이 추진해 4차산업을 이끄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산 =김정한기자

우/리/동/네

북스타트 책꾸러미 택배서비스 운영

공주시, 관내 영유아~초등1학년… 6월부터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함께 어린이들이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영유아 독서문화진흥사업 '북스타트'를 추진한다.

북스타트 책꾸러미는 연령별 그림책 2권과 에코백으로 구성되는데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지원으로 꾸러미를 6월부터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주시이며, 부모 또는 아이가 공주시도서관회원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도서관 이메일(gjmiracleli b@naver.com)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보내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2021 북스타트 부모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신성욱 과학저널리스트의 '독서이야기와 뇌발달' 프로그램이 7월 3일 열리고, 7월 17일에는 황진희 작가의 '그림책 육아'가 운영된다.

접수는 6월 15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www.gongjulib.go.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 도서관(☎041-840-895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분 평생교육과장은 "북스타트는 평생교육의 출발점이자 자녀와 부모의 정서적 교감을 돕는 지역사회의 문화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공주=정상범기자

금산군,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이월 체납액 45% 12억7100만 원 징수 목표

금산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이월 체납액의 45%인 12억 71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금융재산, 급여 압류 △신용정보등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예금압류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식, 가상화폐 등 다양한 금융재산을 조사해 압류할 계획이다.

3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 전담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펼치고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공매처분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 징수팀(☎041-750-2442) 및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간 동안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액 최소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내 고장 주소 갖기 캠페인

공주시 신관동주민자치회

공주시 신관동주민자치회(회장 노한섭)는 지난 24일 관내 인구 증가를 위한 '내 고장 주소 갖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노한섭 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위원들과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을 상대로 현수막과 홍보물 등을 이용해 '내 고장 주소 갖기' 등 인구증가시책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신관동 우리은행 사거리(신관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퇴근 시간대에 진행돼 홍보 효과를 높였다.

노한섭 회장은 "공주시민의 일원으로써 공주시의 인구 증가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시의 인구 증가를 시민의 손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관동주민자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부한 신관동장은 "공주시민들이 공주시정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신관동은 앞으로도 신관동주민자치회 등 시민들과 함께 공주시 인구 증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관동주민자치회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매달 2회 이상 '내 고장 주소 갖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공주=정상범기자

보령시, 13개소 경로당에 5900만원 투입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

보령시는 올해 13개소 경로당에 5900만원을 투입해 39KW 규모의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폭염과 한파에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을 위해 가동하는 냉난방기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

2018년부터 복권기금으로 시행한 이 사업은 음영 구간, 건물 노후, 장소 협소 등으로 태양광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로당을 제외한 모든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관내 경로당 404개소 중 30개소에 90KW를 보급 완료했으며, 올해는 13개소를 선정하여 39KW를 보급한다.

이를 통해 연간 320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연중 64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30년산 소나무 946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최근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냉난방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태양광 시설 설치를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이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한국실업사격연맹회장배

서산시 금3 · 은2 · 동5 획득

서산시가 지난 19일부터 5일간 창원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된 '한국실업사격연맹회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일 소승섭 선수의 50m권총 개인전(555점), 박성현 선수의 10m공기소총 개인전(228점), 김희선 · 박지원 · 유현영 · 오정은 선수가 25m권총 단체전(1739점)에서 3개의 동메달을 획득했다.

20일에는 50m복사에서 이은서 선수가 개인전(623점) 금메달과 이은서 · 박해미 · 정미라 · 고도원 선수가 단체전(1861점)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벌어진 10m공기권총에서는 김희선 · 오정은 · 유현영 · 박지원 선수가 단체전(1726점)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21일에는 고도원 · 이은서 · 박해미 · 정미라 선수가 50m소총3자세 단체전(3505점) 금메달을 추가했으며, 이은서 선수가 같은 종목 개인전(459점)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22일에는 소승섭 선수가 25m센터파이어권총 개인전(582점) 동메달, 소승섭 · 김영민 · 서덕원 · 홍성환 선수가 25m센터파이어권총 단체전(1714점)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올해 우수선수 영입을 통한 사격팀 여자 소총부문 전력 보강이 금메달 획득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코로나19 속에도 전국사격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선수들께 고맙다"며 "앞으로도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사격팀은 25일에 개최하는 제4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서산 =김정한기자

비상임 이사 등 임원후보자 공개 모집

보령축제관광재단

보령시는 6월4일부터 7일까지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비상임이사 등 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비상임 이사는 모두 5명으로 재단의 사업분야 및 시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지방출자 · 출연기관 경영 전반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합리적 판단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다.

비상임 이사는 보령머드축제, 대천겨울바다 사랑축제 등 시 대표 축제의 일정과 프로그램 편성 안건 심의, 보령머드화장품 사업을 비롯한 재단의 예산 수립과 추경 등 관리 운영을 위한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김태선 기자

숨은자원찾기 행사 실시

공주시 반포면, 자원 재활용 · 환경오염 방지

공주시 반포면(면장 김재철)은 지난 24일 반포면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반포면새마을회(협의회장 임창훈, 부녀회장 김말임)와 이장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 재활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숨은자원찾기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지역에 방치된 폐비닐, 농약 빈 병 등 폐기물과 각 마을과 가정에서 배출한 종이, 고철, 유리병 등 약 5톤가량의 숨은 자원을 수거했다. 아울러 '내 집 · 내 상가 앞 청소하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과 주변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임창훈 새마을협의회장과 김말임 새마을부녀회장은 "숨은자원찾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버려지는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주=정상범기자

금산 추부 · 진산도서관, 올해 다문화 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금산군 추부 · 진산도서관은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내국인 및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1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 선정으로 42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되며 추부지역아동센터 및 진산학습관에서 각 도서관과 함께한다.

주요 활동으로 △인형으로 만나는 동화세상 △조물락 책 놀이터 △영어로 배우는 미 · 영문화 △손끝 세계사 등이 계획됐다.

군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이 우리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다"며 "앞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상호 존중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다 함께 행복하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보령시, 7월부터 종량제봉투 100L 폐지하고 75L 사용 전환

보령시는 7월부터 환경미화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0L 종량제봉투 제작을 폐지하고 75L 종량제봉투를 제작 ·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를 분석한 결과 쓰레기를 차량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장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 노출을 줄이고 생활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종량제봉투 규격을 전환한다. 이미 제작된 100L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구매 · 사용이 가능하며 75L 종량제봉투는 7월부터 제작 · 판매할 계획이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예당호 느린호수길 '6월 추천 가볼만한 곳' 선정

한국관광공사

느린호수길과 예산의 별미, 볼거리 등 함께 소개

예산군 예당호 느린호수길이 한국 관광공사의 '6월 추천이,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됐다. 한국 관광공사는 매월 다양한 테마로 국민들이 가보면 좋을 만한 여행지를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추천 여행지는 여행기자와 여행작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직접 방문해 사전답사, 현장실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6월 추천 가볼 만한 곳'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호수로 떠나는 힐링 여행지'를 테마로 ▲충남 예산군 '예당호 느린호수길' ▲경기도 수원시 '광교 호수공원'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송지호' ▲경북 안동시 '안동호&지례예술촌' ▲경남 밀양시 '밀양 위양지' ▲전남 화순군 '세량지' 등 6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군의 먹거리와 관광자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관광자원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2019년 10월 조성된 예당호 느린호수길은 지난해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예당호 수변공원부터 예당호 중앙생태공원까지 총길이 7㎞의 비순환형 코스에 ▲예당호 수문 둘레길 ▲수변 테마길 ▲농촌테마길 ▲생태 테마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느린호수길은 가족과 연인 등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사색 길이자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한국 관광공사는 예당호 느린호수길 외에도 예산의 별미인 민물어죽, 붕어찜, 민물새우튀김 등 음식을 비롯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예당호 출렁다리 · 음악분수, 예산황새공원, 그리고 봉수산휴양림, 봉수산수목원, 임존성 등 군의 다양한 볼거리를 함께 소개했다.

이번 한국 관광공사 선정 추천 6월의 가볼 만한 곳은 다음 달부터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국내외 다양한 관광객들에게 널리 소개돼 보다 많은 관광객이 군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 한국관광공사의 추천 여행지 선정은 느린호수길이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산업형 관광도시 예산군에 오는 모든 관광객을 위해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더욱 다양한 테마 여행코스 개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이영렬기자

서산시, 30일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 공공시설 임시 휴관

30일까지 잠정 운영 제한, 일주일 사이 확진자 39명 발생

서산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일주일 사이에 39명이나 급증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공공시설 운영을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추가 확진자 및 연쇄 감염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시민 이용이 높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전면 휴관조치에 나선다.

종합운동장(육상경기 · 축구 · 테니스장), 시민체육관(탁구장), 국민체육센터, 서산시 야외인라인스케이트장, 파크골프장(그라운드골프, 우드볼), 국궁장, 부춘산레포츠공원 등이 해당한다.

서산시문화회관과 서산문화원, 서산생활문화원, 창작예술촌,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안견기념관 등 문화예술 시설도 휴관한다.

단, 오는 31일까지 서산시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추진 중인 박재숙 도예작가 초대전은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된다.

시민 이용이 많은 서산버드랜드 및 서산시립도서관과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게이트볼장,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등도 모두 휴관한다.

시는 우선 30일까지 공공시설을 휴관하기로 하고 평생학습 등은 비대면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오는 28일 휴관 조치 연장 유무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는 앞으로의 방역체계 구축에 있어 매우 엄중한 시점"이라며 "자신과 내 이웃,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잠시 멈추고 방역수칙 준수에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서산=김정한기자

아산시, 공무원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차량등록과 제안 '장기 미말소 차량의 소유자 대한 적극 고지 통한 재산상 피해 구제'

아산시(시장 오세현) 차량등록과에서 제안한 '장기 미말소 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적극 고지를 통한 재산상 피해 구제'가 충남도에서 주관한 공무원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조직 내 또는 대민 행정현장에서의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주제로 도와 시군 공무원이 제안한 59개의 아이디어 중 10건을 선발해 총 2700여 명의 국민심사를 거쳐 지난 21일 최종 선정됐다.

박종열 차량등록과장은 "이번 아이디어 제안은 이미 아산시가 2020년 시범 운영한 건으로 차량등록과 전 직원의 적극 행정 모범 사례라 볼 수 있다"며, "아산시민에게 더 나은 차량등록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올해 통합민원 창구 운영, 한눈에 차량등록 외국인 가이드맵 5개 국어 번역, 차량등록 민원안내도 L자파일(홀더) 제작 등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 중구의회, 법사랑 대전지역장학회 장학생 격려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김연수)는 24일 의장실에서 법사랑 대전지역장학회에서 수여하는 장학금 수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남은지 학생은(신일여고 3학년) 국가대표 치어리더로 활동하고 있으나 선수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훈련에 매진하였고, 각종 국제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지역사회 위상을 높이고 있다.

법사랑 대전지역장학회는 관내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억원의 장학금을 품행이 단정하고 모교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타 학생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장학생은 중구의회가 추천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였다.

김연수 의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우리 지역사회의 동량이 되기를 기대하며, 중구의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중구의회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대전세종충남 MG새마을금고 'MG새마을금고 지역상생의 날' 사회공헌사업

「MG새마을금고 지역상생의 날」 기념… 각 지역별로 총 3400만원 상당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 실시

MG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설립이념을 되새기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창립기념일인 5월 25일을 「MG새마을금고 지역상생의 날」로 지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정인순) 및 9개로 구성된 새마을금고이사장협의회는 「MG새마을금고 지역상생의 날」을 기념해 각 지역별로 총 340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MG새마을금고 지역상생의 날」을 기념해 환경보호를 위한 에코백 나눔 행사, 코로나19 현장종사자를 위한 물품 지원 및 장애인 합창단을 위한 무대의상 구입 지원 등 지역별 요구를 반영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는 사회공헌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이용고객에게 물품을 지원하는 '내수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도보 및 자전거 이용을 통해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가는 'MG가족 걷기 좋은 날 캠페인'과 전국 릴FP이 헌혈 및 헌혈증을 기부하는 'MG가족 헌혈릴레이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당초 5800매의 헌혈증 기부를 목표로 했지만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1만1655매의 헌혈증이 기부됐다. 이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될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충청지방통계청, 2/4분기 가축동향조사 실시

충청지방통계청에서는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18일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가축 사육 가구(농장)를 대상으로 2/4분기 가축동향조사를 실시한다.

가축동향조사는 가구(농장)수와 연령별 · 성별 마릿수를 파악해 축산정책수립과 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1일 0시 기준으로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 및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기간 중에 담당 직원이 가구를 방문해 실시하는 면접조사와 CATI, 전화, FAX, E-mail 등을 이용하는 비면접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응답한 내용은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보호되므로 담당 직원의 가축동향조사 시 가구의 성실한 응답 협조를 당부했다. 조사 결과는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및 보도자료를 통해 7월에 공표한다. 문의 충청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금인섭 ☎ 042-366-8170, kum654321@korea.kr)

송병배기자

태안 천리포수목원, 상하이 국제플라워쇼 2년 연속 금상

태안 천리포수목원 팀이 설계한 '온고지신(독살)' 정원이 2021년도 상하이 국제 플라워쇼 International gardens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한국 대표로 참여해 2년 연속 금상(Gold Award)을 수상한 것으로 의미를 더 하고 있다.

천리포수목원은 2021 상하이 국제 플라워쇼(2020 Shanghai international Flower show)에서 천리포수목원 강희혁, 박내규 사원과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 19기 교육생 성희원, 전화정, 주원주가 출품한 '온고지신(독살)' 정원이 International gardens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온고지신(독살)' 정원은 태안의 사라져 가는 옛것 중 하나인 독살을 모티브로 설계한 정원이다. 정원 슬로건은 '독살, 지속하여야 할 섬세한 손길'로, 천리포수목원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을 중국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상하이식물원에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천리포수목원은 오는 2022년도 상하이 국제 플라워쇼에 참가, 상하이식물원(SHBG)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태안=김정한기자

공주시,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의견 수렴 토론회 성료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24일 공주문화원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번째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경구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진행으로 공주문화원, 공주예총, 중학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분과위원장 등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 그리고 주민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사업인 '제민천 프롬나드 조성'과 '공주 야행 골목길 활성화 사업'의 용역을 맡은 KBS아트비전, 서울전시, 어반마크에서 경과를 보고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중학동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제민천과 대표 행사인 공주 야행이 연관된 사업인 만큼 세부적인 조성 계획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서로 나눴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공주=정상범기자

대전교육청, (주)성수바이오텍 코로나19 예방 손소독제 기탁 받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5일 (주)성수바이오텍(대표이사 안성수)로부터 코로나 예방을 위한 손속독제 13,600개(1억원 상당)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아산시, 여성청년기업인과 간담회 가져 오세현 아산시장이 지난 24일,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당당히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여성청년기업인 3인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아산시는 지난 2월부터 '2021년 청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더 큰 아산, 더 큰 행복' 정책 비전을 위해 분야별로 청년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릴레이로 진행해 왔다.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방송국 개소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온택트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25일 '대덕e 대덕을 잇다(IT-多), 만남은 언제나 온에어(ON-AIR)' 방송국 개소식을 열었다. 이번 개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 등 여가 ·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양활성화재단, 도시 소비자 대상 생태교육 실시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이사장 김윤호 청양부군수)이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소재 청양먹거리직매장 소비자 회원 200여 명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교육'을 실시했다.

MSL 레저용품 전문점 명성레포츠
스키 · 스노보드 · 자이글 · MTB ·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 보트보드 전문점 · 골프용품
專務理事 최재종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1478-6 TEL : 042)489-3030 · 486-7876
FAX : 042)472-5885 H · P : 011-408-6600 Website : www.msleports.co.kr

대전교육청, 바르게살기운동 대전서구협의회와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바르게살기운동대전서구협의회와 함께 25일 오전 대전구봉중학교 정문에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고려대학교 세종학술정보원, 제11회 독후감대회 성료 지난21일 고려대학교 세종학술정보원(원장 정주노) 영림임업 멀티존에서 제11회 독후감 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세종학술정보원이 주최한 이번 독후감 대회는 학생들의 비평적 글쓰기 능력 향상과 독서 활동 장려를 위해 개최됐다.

밝은사회 당진클럽, 당진 1동에 상품권 500만 원 기부 밝은 사회 당진클럽(회장 김대원)은 지난 25일, 당진 1동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배방적십자봉사회, 소외계층 맞춤형 방문봉사 펼쳐 아산시 대한적십자사 배방봉사회(회장 현창섭)가 지난 21일, 관내 저소득층 23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배방적십자봉사회 단원들은 각 가구를 방문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산시기초푸드뱅크에서 지원받은 식료품을 전달했다.

조재연 대전세종중기청장, 백년가게 '성심당' 방문 조재연 대전 · 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25일 지난해 대전 · 세종지역 백년가게로 선정된 성심당을 방문, 제과 업계 동향 및 규제 · 애로사항 청취, 백년가게 브랜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읍·면지역 중학생에 장학금 지급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이사장 김정섭)는 지난 24일 공주시청에서 지역인재 선발 및 육성을 위한 2021년도 제2회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서해5도 소외지역 고등학생 대상 운영

백석대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입학관리처는 5월 25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연평고등학교에서 서해5도 소외지역 고등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진로체험 기회가 줄어든 서해5도 소외지역 중 연평고등학교의 요청으로 연평 고등학교와 연평중학교 총 5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진로체험 프로그램에는 4개 전공(뮤지컬, 항공서비스, 경찰, 간호) 17명의 재학생이 참여했으며, 청소년들이 체험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참여의 장으로 마련됐다.

뮤지컬전공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악보 보는 법, 노래 연습, 화음 넣는 법 등을 준비했고, 항공서비스전공은 기내 긴급상황 대처방법과 서비스 마인드 관련 교육, 경찰학전공은 지문채취 및 감별 방법, 간호학과는 혈압 재는 법과 부군술에 대해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석대학교 곽노윤 입학관리처장은 "진로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지역 학생들이 좀 더 전문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연평고등학교 정준교 진로부장 교사는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는데, 이런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다양한 전공체험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석대학교와 연평고등학교는 지난 2016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평고에서 대학을 방문해 진로체험을 하는 식으로 교류를 지속해 왔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고, 올해도 방문이 불투명해지자 대학에 방문을 요청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이날 행사는 정부가 권고하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천안=이정복기자

'동서횡단철도 건설' 640만 도민 뭉쳤다

충남북 · 경북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신규 반영 공동건의

충남북과 경북 640만 도민들이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며 동해와 서해를 잇게 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세 도지사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 시 발표된 초안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며, 중부권 철도망 구축을 통한 철도교통 서비스 확대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 도지사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가균형발전 실현 및 신성장동력 창출의 원동력이 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대전시체육회, 삼성스마일안과 업무 협약 체결 대전광역시체육회와 삼성스마일안과가 25일 대전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삼성스마일안과는 협약기간 중 대전체육회소속 선수 · 지도자 중 매년1명을 선발하여 무료 스마일 라식수술을 지원하고, 그 외에도 각종 라식 · 라섹수술 등 할인을 제공키로 하였다.

정석환 병무청장, 대전충남병무청 방문 정석환 병무청장이 25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을 방문, 병역판정검사장을 둘러본 후 주요 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 청장은 먼저 병역판정검사장의 사전 선별소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병역판정검사 관련 직원들에게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 공정하고 정확한 검사를 당부했다.

유성구-SCI '디지털 골목식당' 사업 연계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위한 MOU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25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예약관리 솔루션 스타트업 SCI(대표 노승찬)와 '유성구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성구와 민간 스타트업이 협력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SCI는 유성구 소상공 외식업소에 'AI기반 역경매 식당예약 플랫폼 서비스' 무료입점을 제공하고, 고객DB 분석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한 신규 지원사업을 공동개발할 예정이다. 구는 효과적인 협약사업 추진을 위해 구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사업인 '디지털 골목식당' 사업과 연계해 시범적용 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선기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트리플래닛 업무협약 체결

산림복지서비스 과학적 효과 입증 맞손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25일 대전 서구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트리플래닛(대표 김형수)과 ESG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ESG 연계 지속가능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콘텐츠 개발 ▲국민과 기업 참여를 통한 소외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 수혜 활성화 ▲신규사업 모델 개발 등 양 기관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등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속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산림복지 콘텐츠를 발굴해 국민에게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창재 원장은 "트리플래닛의 반려나무를 활용해 코로나 우울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지속가능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시설관리공단 '119 릴레이 챌린지' 동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은 24일 소방안전용품과 화재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119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제58회 소방의 날인 지난해 11월 9일을 기념해 시작되었으며, SNS상에서 가구마다 소화기 및 소방감지기 구비하여 화재에 대비하자는 의미를 담아 진행되고 있다.

설동승 이사장은 대전도시철도공사 김경철 사장의 추천으로 캠페인에 동참하였으며, 다음 릴레이 참가자로 대전마케팅공사 고경곤 사장과 대전테크노파크 임헌문 원장을 지목했다.

설 이사장은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각 가정에서 소화기, 화재감지기 구비하여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화재안전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한국영상대 유재원 총장 '고고 챌린지' 동참

한국영상대학교 유재원 총장이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고고 챌린지'에 동참했다. 고고 챌린지는 환경부에서 시작한 탈플라스틱 사회전환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해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SNS릴레이 캠페인이다.

공주대 원성수 총장의 지목을 받아 고고챌린지에 참여한 유재원 총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에코 캠퍼스를 만들고' 실천 운동을 참여했다.

유재원 총장은 다음 실천 주자로 수성대학교 김선순총장, 연암대학교 육근열 총장을 지명했다.

유재원 총장은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사용하는 등 에코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태안소방서, 꽃지해수욕장 갯바위 고립자 2명 구조

태안소방서(서장 이희선)는 25일 오후 12시 16분경 안면도 소재 꽃지해수욕장 할미 할아비 바위 인근 갯바위에 고립된 유모씨(60대)와 황모씨(50대) 등 2명을 40여 분만에 무사히 구조했다.

태안소방서는 동네 안전구조대의 신고를 받고 태안해경과 함께 민간어선을 이용하여 현장으로 출동해 이들을 구조하였으며 구조 당시 건강상태는 양호한 상태이다.

유씨 등 2명은 간조 때 꽃지해수욕장 앞 갯바위로 걸어 들어가 구경을 하던 중 바닷물이 차올라 갯바위에 고립됐다.

태안=김정한기자

기 고

'식량안보'는 우리 모두의 숙제

이 상 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보건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식량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국제사회는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의 기아 인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약 1억 9000만명이 늘어났다. 2019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약 8.9% 수준인 6억 9000만명에서 더 증가한 것으로 특히 개도국 취약계층의 영양불량인구가 더욱 많은 상황이다.

개도국 등의 취약계층은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뿐만 아니라 식량부족으로 일상이 위협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노벨위원회가 지난해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 혼란에 대응한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라고 밝힌 바 있듯이 식량은 인류에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보다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식량위기가 올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뉴스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이로 인한 식량불안 우려는 기우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비단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지역에서는 100년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유럽 최대의 밀 · 옥수수 재배지가 대흉작을 겪었고 우리나라도 역대 최장의 장마와 호우 · 태풍 등으로 인해 쌀, 채소류 등 농산물 생산이 감소하였다.

세계기상기구(WMO)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은 기후 역사에 있어 최악의 한 해로 기록될 만큼,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산불 · 태풍 · 홍수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고 식량부족 위기에 처했다. 그런 반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지 않던 망고나 파파야 같은 아열대 작물들의 재배가 늘고 있고 경북에서 주로 재배되는 사과의 재배지역이 강원도 지역까지 북상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식량'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각 국이 앞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 농촌 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농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점진적 변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농업은 농식품의 생산 · 유통 · 소비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탄소 정밀농업,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가축 사육과정에서의 메탄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사료 개발 · 보급,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을 추진하고 농식품의 유통과 소비 측면에서 식품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등 전방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기후위기가 식량위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 노력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는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동 회의 기간 중 개최되는 식량 · 농업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푸드시스템'을 주제로 정하고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함과 동시에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과의 파트너십 지원 사례와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글로벌 협력 사업 모델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식량 · 농업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국가별, 분야별, 정부 · 시민사회 · 기업 등 주체별 의견이 모두 다양한 만큼 P4G와 같은 채널을 통한 논의의 장 마련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식량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식량 · 농업 세션에서의 논의는 올해 9월에 개최되는 UN푸드시스템 정상회의로까지 이어지는 가교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안보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푸드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농업인, 소비자, 식품 관련 유통 · 가공업 종사자 등 주체별로 각각의 '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P4G 식량 · 농업 세션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작은 행동이라도 어떻게 바뀌나갈지 인식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건강 칼럼

마스크 달고 사니… 내 입 냄새가 이렇게 심하다고???

김 경 아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치과 교수

전 세계를 막론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런데 이외의 '복병'이 고통을 주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본인의 '입 냄새'를 맡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입 냄새는 국민의 60% 가량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주위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거나 이런 저런 상황 속에서 본인 스스로 알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양상은 마스크로 코와 입 주변을 밀폐시키면서 입 냄새를 맡게 돼 '내 입 냄새가 이정도인지 몰랐다'고 자각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입 냄새가 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아침에 잠에서 깬 뒤다. 자는 도중 침 분비량이 줄거나 거의 없어 입안이 마르기 때문이다. 물론 잠자기 전에 칫솔질을 하지 않았거나 구석구석 제대로 칫솔질을 하지 않아 입 속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밤새 부패하면서 냄새가 심해질 수도 있다.

입 냄새를 유발하는 음식으로는 커피, 초콜릿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파, 양파, 마늘, 달걀, 치즈 등과 같은 음식물을 먹고 난 뒤 그 찌꺼기가 입안에 남아있는 경우도 심한 입 냄새가 날 수 있다.

공복 시에도 특유의 입 냄새가 날 수 있다. 이는 뱃속이 비었을 때 침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세균을 없애는 자정 능력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이다. 시큼한 냄새는 비어 있는 위장에서 위산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나는 위산의 냄새라고 볼 수 있다.

드물긴 하지만 입 냄새가 심할 경우 전신질환을 나타내는 징후가 될 수도 있다. 당뇨병이나 신부전증, 간질환 등 내과질환이나 만성축농증, 인후질환 등 이비인후과질환에 의해서도 입 냄새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입에서만 냄새가 나는 구강질환과는 달리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내쉴 때 특히 냄새가 많이 나는 특징이 있다. 냄새 역시 조금씩 다르다. 보통 급성 간경변 환자에서는 계란이나 버섯이 썩는 냄새 같은 구린내가 나고, 당뇨환자들은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냄새, 신부전 증환자는 소변냄새 같은 지린내가 풍긴다.

사실 건강한 사람도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대부분 입 냄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려면 제대로 된 칫솔질이 필수이며, 어금니뿐만 아니라 잇몸 안쪽까지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고 혀 뒷부분에서 입 냄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혀도 깨끗이 관리해 줘야 한다.

치간 칫솔이나 치실 등을 써서 치아 사이사이에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틀니를 하고 있거나 치아에 다른 보철물이 있을 때는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입 냄새가 심하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국앤컴퍼니, 창립 80주년 맞아 전사 임직원 봉사활동 실시

시각장애인용 점자 · 촉각 · 음성도서 제작해 시각장애인학교 등 80여곳에 기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의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5월을 자원봉사의 달(Volunteer Month)로 정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도서 만들기'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국앤컴퍼니와 계열사인 한국타이어 본사 및 공장 등 전 사업장의 임직원이 참석해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대규모 대면 행사 개최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내부 구성원들과 함께 창립 8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활동으로 기획됐다.

5월 한 달간 모든 임직원이 소규모 조 편성으로 인원 밀집도를 최소화해 시각장애인용 특수도서 제작에 동참했으며, 임직원들의 정성이 들어간 기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 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도서는 주요 관 · 현 · 타악기의 모양을 촉각화해 책을 만지면서 해당 악기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점자 · 촉각 · 음성도서로 제작됐고 전국 국공립 도서관, 시각장애인학교, 특수학교 등 80여 곳에 증정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앤컴퍼니는 1941년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 타이어 회사로 시작해 지난 10월 창립 80주년을 맞았다. 80년의 역사 동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공헌, 윤리경영, 환경경영 등 제반 기업 활동들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최상위 수준의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핵심 비즈니스 특성인 '이동성(Mobility)'을 반영한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 '차량나눔' 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총 550여 대의 차량을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지원했으며, '타이어나눔'을 통해 2010년부터 11년 동안 총 2만 4000개 이상의 타이어를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에도 '차량나눔'과 '타이어나눔' 사업 모두 공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핵심 계열사인 한국타이어는 세계 최고 권위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수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월드(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World)'에 5년 연속 편입되는 위업을 달성하며 글로벌 최상위 지속가능경영 클래스를 이어가고 있다.

송병배기자

사 설

여름철 식중독 예방수칙 철저 준수를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왔다. 해마다 고온다습한 하절기에는 무엇보다 시민 건강을 해치는 식중독이 우려된다. 올해는 지난 어느 해보다 더운 날씨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일기 예보도 있다. 기온이 올라가면 식재료와 조리한 음식들이 상하기 쉽다. 변질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 세균 등에 감염돼 질환을 앓게 된다. 식중독 원인은 다양하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조리한 음식은 오랜 시간 방치하지 말고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고, 육류와 어패류 등은 잘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봄부터 여름에 이어지는 시기는 나들이 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음식점보다는 상당수 가정들이 펜션과 콘도 등에서 직접 요리를 해 취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신선하고 청결한 식자재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조리한 음식 보관도 중요하다.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아깝다고 변질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에 걸리기 쉽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실시한 수입 김치 통관 단계 검사 결과, 중국산 김치 15개 제품에서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여시니아는 0~5℃ 저온에서도 발육이 가능한 식중독균으로 설사 · 복통 · 두통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이 웰빙이다. 자칫 위생을 소홀히 할 경우 건강을 해치기 쉽다. 심할 경우 자신과 가정이 불행에 빠진다. 나아가 국가 경제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각자의 위생은 각자가 지켜야 한다. 특히 인천 등 해안을 접하고 있는 지역 시민들은 어패류 등 해산물을 접하기 쉽다. 해마다 여름 건강을 위협하는 비브리오패혈증도 경계해야 한다. 패혈증의 경우 한 번 감염되면 치사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중독은 시민 각자가 스스로 건강은 스스로가 지킨다는 자세로 예방법을 실천하면 온전히 무더운 여름을 날 수 있다. 식중독은 예방이 최선이다. 식중독 3대 예방법인 손 씻기와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잊지 말아야 하겠다.

공무원 대폭 증원, 미래 세대에 짐이자 국가경쟁력 감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8개월 동안 공무원 수가 10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문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9만9천465명은 직전 4개 정부에서 증가한 9만6천571명보다 많다. 문 대통령이 공무원 17만4천 명을 늘리겠다고 공약한 점을 고려할 때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13만1천796명이다. 최근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숫자는 노무현 정부 7만4천445명, 이명박 정부 1만2천116명, 박근혜 정부 4만1천504명이다. 김대중 정부 때는 공무원 수가 3만1천494명 줄었다.

공무원 채용을 늘리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또 공무원 조직 내부의 인력난 해소로 업무 부담도 줄어든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는 데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만큼 대국민 서비스 인력은 당분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공무원을 지금처럼 마구 늘리는 것은 현 세대의 편익을 위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다.

문 정부 공약대로 17만4천 명을 9급 공무원으로 순차 채용할 경우 30년간 327조7천847억 원(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의 비용이 든다(국회예산정책처 분석). 한국납세자연맹은 419조2천815억 원이 들 것으로 예측한다.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기준 1천44조7천억 원이고 해마다 늘고 있다. 모두 자식 · 손자 세대의 부담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온갖 호들갑을 다 떨더니, 세금 투입형 단기 알바와 공무원 숫자를 늘려 후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잠재 경제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 그런 마당에 서비스가 주 업무인 공무원을 크게 늘리는 것은 민간 분야에서 일할 인재를 줄여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복지와 서비스 확대를 이유로 공무원 숫자를 마구 늘릴 일이 아니다. 공무원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갤러리아타임월드, 골프존 마켓 OPEN

갤러리아타임월드(영업면적 6만8380㎡, 약 2만685평)가 골프 인구가 증가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춰 브랜드와 상품 구색을 강화한 '골프존 마켓'을 25일 오픈하며 골프 고객 수요 잡기에 나선다.

7층에 143.8㎡(약 44평) 규모로 들어선 '골프존 마켓'에서는 클럽, 풀세트, 가방, 액세서리 등 다양한 브랜드의 아이템을 선보여 골프에 입문하는 골프 초보부터 싱글골퍼까지 폭넓은 골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채로운 상품을 제안한다.

또한 시타 분석실을 활용해 본인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체험해본 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

오픈 기념 특가 상품도 선보인다. '테일러메이드 SIM MAX' 드라이버 49만9000원, 우드 27만9000원, '캘러웨이 MAVRIK' 드라이버 49만9000원, 스틸 8아이언 89만원, '브리지스톤 J819' 드라이버 34만9000원, '미즈노 JPX S10' 스틸 8아이언 115만원등 다양한 골프용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매장 방문시 '티케이스'와 카카오채널 신규 추가시 5%할인+컬러볼 2구를 증정한다.

송병배 기자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 현 정 | 회 장 김 성 구 | 논설위원 조 정 호
전화안내 042)538-3030 | 기사제보 042)538-1601 |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 구 독 료 월1만 50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투데이

아 산 시
오 세 현

선문대학교
총장 황 선 조

아산시보건소
소장 구 본 조

온양농협
조합장 김 준 석

배방농협
조합장 이 전 행

대전투데이후원회일동

순천향대학교 SCH SOON CHUN HYANG UNIVERSITY
순천향대학교
총장 김 승 우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문희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소 장 김 정 규

NH농협
농협아산시지부
지부장 진 문 종

아산축산농협
조합장 천 해 수

아산원예농협
조합장 구 본 권

산림조합
아산시 산림조합
조합장 이 택 구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지사장 이 민 수

아산충무병원
이사장 이 지 혜